

**언어와 매체 EBS 수능특강
2024~2019학년도 6개년 모음**

6. 종합 (문제)

**편집자 : 오르비 '인센디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EBS에게 있습니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의 반모음화는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 앞에서 음성적으로 유사한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반모음화는 ‘ㅣ’나 ‘ㅓ/ㅜ’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ㅈ/ㅊ’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일어난다. ‘ㅣ’에 반모음화가 적용되면 ‘ㅈ’로 바뀌고, ‘ㅓ/ㅜ’에 반모음화가 적용되면 ‘ㅍ’로 바뀐다. 이 두 가지 반모음화를 각각 ‘j’ 반모음화, ‘w’ 반모음화라고 부른다. ‘피-+-어’가 ‘피[피:]’가 되는 것은 ‘j’ 반모음화의 예이고, ‘두-+-어’가 ‘뒤[뒤:]’가 되는 것은 ‘w’ 반모음화의 예이다. 이처럼 반모음화가 일어날 때, 용언 어간이 1음절일 경우 장음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를 보상적 장음화라고 부른다.

15세기에도 ‘j’ 반모음화와 ‘w’ 반모음화가 존재하였으나, 현대 국어와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j’ 반모음화의 경우 용언 어간 말의 ‘ㅣ’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었다. 15세기 국어에는 반모음 ‘j’로 끝나는 하향 이중모음이 많았기 때문에 단모음 ‘ㅣ’가 다른 모음 뒤에서 반모음화를 겪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격 조사 ‘이’와 서술격 조사 ‘이라’가 ‘ㅣ’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결합할 때, 용언 어간 뒤에 ‘이’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할 때 활발하게 일어났다. 또 용언 어간 말의 ‘ㅣ’의 경우에는 ‘ㅈ/ㅊ’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물론이고 ‘ㅓ/ㅜ’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반모음 ‘j’로 바뀌었다.

15세기의 ‘w’ 반모음화의 경우에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적용되었다. 그런데 ‘w’ 반모음화의 경우 15세기에는 세력이 약하였기 때문에 1음절 어간의 경우 ‘오-’와 ‘소-’를 제외하면 반모음화의 예가 보이지 않는다. 또 2음절 이상의 어간도 마지막 음절의 초성이 없거나 후음 ‘ㅎ’인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일어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수의적으로 일어났다.

[23004-0075]

01 윗글에서 설명한 15세기의 반모음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티-+-음 → 튼
- ② 바+이라 → 배라
- ③ 꾸미-+-어 → 꾸며
- ④ 흐리-+-어 → 흐리어
- ⑤ 눈호-+-아 → 눈화

[23004-0076]

02 **윗글을 읽고 <보기>에 드러난 현대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이기-+-어라 → 이겨라[이겨러]
- ㉡ 지-+-어도 → 저도[저도]
- ㉢ 살피-+-어 → 살피[살피]
- ㉣ 나누-+-어 → 나뉘[나뉘]
- ㉤ 쓰-+-어 → 써[써]

- ① ㉠에서 ‘기’의 ‘ㅣ’가 반모음 ‘j’로 바뀌는 것은 ‘ㅣ’와 ‘j’가 음성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구나.
- ② ㉡의 ‘저도’의 경우 [저도]라고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j’가 첨가되었기 때문이구나.
- ③ ㉢의 ‘살피[살피]’의 경우 ‘j’ 반모음화가 일어났으나 ‘피-+-어 → 피[피:]’와 달리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나지는 않는구나.
- ④ ㉣의 ‘나뉘[나뉘]’의 경우 ‘뉘[뉘:]’와 마찬가지로 활용할 때 ‘w’ 반모음화가 일어나는구나.
- ⑤ ㉤의 ‘쓰-+-어 → 써[써]’의 경우 ‘피-+-어 → 피[피:]’와 달리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날 때 단모음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23004-0077]

03 **<보기>의 ㉠~㉤의 문장의 짜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서울은 인구가 많다.
- ㉡ 민재가 결백함이 밝혀졌다.
- ㉢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내 앞을 지나갔다.
- ㉣ 그는 자신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 ㉤ 우리들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 ①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성립하는 홑문장이다.
- ② ㉡에서는 ‘민재가 결백함’이라는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은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교복을 입은’을 안은 문장이다.
- ④ ㉣은 ‘대학에 입학했다고’라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⑤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세 번 성립하는 겹문장이다.

[23004-0078]

04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여러 문장 성분들을 선택하고 제약하는 문장의 핵심은 서술어입니다.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에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인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를 먼저 분석하고, 필수적 부사어를 제외한 부사어나 관형어, 독립어를 나중에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먼저 분석하는 문장 성분을 1차 성분이라고 하고, 나중에 분석하는 문장 성분을 2차 성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친구의 공을 빌렸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인 '빌리다'를 고려하여 1차 성분으로 주어인 '나는'과 목적어 '친구의 공을'을 먼저 분석하고, 목적어 '친구의 공을' 중에서 '공'을 수식하는 관형어 '친구의'를 2차 성분으로 다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며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볼까요?

[자료] (가) 연재의 동생은 책을 많이 읽는다. (나) 나는 새 신발을 신발장에 넣었다.
(다) 그것은 문제의 정답이 아니다.

학생:

㉠

- ① (가)의 '연재의'와 '많이'는 2차 성분에 해당한다.
- ② (가)에서 '읽는다'가 요구하는 1차 성분은 주어와 목적어이다.
- ③ (나)의 1차 성분은 '나는', '새 신발을', '신발장에'이다.
- ④ (다)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1차 성분은 2개의 주어이다.
- ⑤ (나)와 (다)는 각각 1개의 2차 성분을 지니고 있다.

[23004-0079]

05 <보기>의 (가)~(마)를 바탕으로 부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 아마 내일쯤 물건이 도착할 것이다.
(나) 일을 빨리만 하지 말고 정확히 하란 말이야.
(다) 우리는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라)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마) 비행기가 아주 높이 날고 있다.

- ① (가)의 '아마'를 보니 부사는 문장 내 위치 이동이 불가능하구나.
- ② (나)의 '빨리만'을 보니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부사도 있구나.
- ③ (다)의 '그러나'를 보니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도 있구나.
- ④ (라)의 '결코'를 보니 부정 표현과만 함께 쓰이는 부사가 있구나.
- ⑤ (마)의 '아주 높이'를 보니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구나.

[23004-0080]

01 <보기>를 참고할 때,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음운 중에는 서로 인접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처럼 음운과 음운 사이의 결합이 제한되는 것을 음운 배열 제약이라 한다. ㉠대표적인 음운 배열 제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ㅂ, ㄷ, ㄱ’과 같은 파열음 예사소리 뒤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의 예사소리가 올 수 없다. 만약 이 제약을 어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뒤에 오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꾼다. 그리고 유음 ‘ㄹ’ 뒤에는 비음 ‘ㄴ’이 올 수 없다. 이 제약을 어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거나, 유음이 탈락된다. 또한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과 파찰음의 예사소리 ‘ㅈ’은 후음 ‘ㅎ’과 인접할 수 없다. 이 제약을 어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후음과 파열음의 예사소리, 후음과 파찰음의 예사소리가 축약되어 거센소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경구개음 ‘ㅅ, ㅆ, ㅊ’ 뒤에는 반모음 ‘j’가 올 수 없다. 만약 이 제약을 어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반모음 ‘j’가 탈락한다.

- ㉠ ‘실’과 ‘눈’이 결합한 ‘실눈’이 [실:륄]으로 발음된다.
- ㉡ ‘곧-’에 ‘-고’가 결합한 ‘곧고’가 [곧꼬]로 발음된다.
- ㉢ ‘낱-’에 ‘-지’가 결합한 ‘낱지’가 [나:치]로 발음된다.
- ㉣ ‘많-’에 ‘-아’가 결합한 ‘많아’가 [마:나]로 발음된다.
- ㉤ ‘다치-’에 ‘-어’가 결합한 ‘다쳐’가 [다쳐]로 발음된다.

[23004-0081]

02 <보기>를 참고하여 제시된 문장의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 있다.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어미나 조사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파생 접사와는 달리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하여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눈에 ㉠덮인 낙엽들이 ㉡거센 ㉢바람에 하늘로 ㉣높이 ㉤날렸다.

- ㉠ ㉠에서 ‘-이-’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파생 접사이다.
- ㉡ ㉡에서 ‘-ㄴ’은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관형어임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 ㉢ ㉢에서 ‘에’는 체언과 결합하여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 ㉣ ㉣에서 ‘-이’는 용언의 어간 뒤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파생 접사이다.
- ㉤ ㉤에서 ‘-리-’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서술어임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23004-0082]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은 책이 정말 많았다.
 ㉡ 민수는 고향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다.
 ㉢ 현정이는 돈도 전혀 없이 일주일을 더 견뎌야 했다.
 ㉣ 우리 집 막내는 그저께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

- ① ㉠에는 두 개의 절이 안겨 있다.
 ② ㉡에 안겨 있는 명사절은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과 ㉢ 모두에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 안겨 있다.
 ④ ㉠과 ㉢에 안겨 있는 절은 모두 부사어를 포함하고 있다.
 ⑤ ㉠~㉢과 달리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23004-0083]

04 <보기>의 과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 선어말 어미와 ㉡ 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는데, 어말 어미는 다시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 어미, 다음 말에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연결 어미, 다른 품사로 기능하게 하는 전성 어미로 나뉜다. 그런데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어도 되지만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음에 제시된 문장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탐구해 보자.

- ㉠ 윤서가 바로 저 나무를 심었구나!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그 친구는 노래도 잘하며 운동도 잘한다.
 ㉣ 할머니께서는 기차역에 언제쯤 도착하셨니?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의 ‘심었구나’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② ㉡의 ‘청소하는’에는 ㉠는 없고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③ ㉢의 ‘잘하며’에는 ㉠는 없고 전성 어미 ‘-며’가 ㉡로 쓰였다.
 ④ ㉣의 ‘도착하셨니’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시-’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종결 어미 ‘-니’가 ㉡로 쓰였다.
 ⑤ ㉤의 ‘불겠지만’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연결 어미 ‘-지만’이 ㉡로 쓰였다.

[23004-0084]

05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에서 목적어가 실현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목적격 조사 ‘을’과 ‘을’이 붙었다.
 예 사름 물(사름 + 을) [사람을], 뜯들(뜯 + 을) [뜻을]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목적격 조사 ‘를’과 ‘를’이 붙었다.
 예 한 쇼를(한 쇼 + 를) [큰 소를], 아즈미를(아즈미 + 를) [아주머니를]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목적격 조사 ‘르’이 쓰이기도 하였다. ……………㉠
 예 가칠(가치 + 르) [까치를]
- 목적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고 생략되기도 하였다. ……………㉡
 예 天地(천지) 마르치샤 [하늘과 땅을 가리키시어], 님금 배반햐야 [임금을 배반하여]
- 보조사가 실현되면 목적격 조사는 대개 실현되지 않았다. ……………㉢
 예 내 말웃 아니 드르시면 [나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보기 2】

- ㉠: 그를 따러 [글을 물어]
- ㉡: 잡일 아니 햐며 [잡일을 아니 하며]
- ㉢: 한 말도 못 햐야 [한 말도 못 하고]
- ㉣: 한 아드를 나햐니 [한 아들을 낳으니]
- ㉤: 개야밀 어엿비 너기고 [개미를 가엽게 여기고]
- ㉥: 모던 께를 일우리잇가 [모진 께를 이루겠습니까]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세기 국어의 자음 체계에는 ‘ㅍ’, ‘ㅌ’이 존재했다. 먼저 ‘ㅍ’은 이미 15세기 후반에 이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중세 국어 시기에 거의 사라지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구체적인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 (1) 가. 글밭>글왁(>글월), 더벼>더워
나. 드뵤니>드외니(>되니), 치브니>치우니(>추우니)

‘ㅍ’은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 변화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1가)와 같이 ‘ㅌ’ 또는 ‘ㄷ’ 앞에서는 반모음 ‘w’로 바뀌었고, (1나)와 같이 ‘ㄱ’, ‘ㄴ’, ‘ㄹ’이 이어진 경우에는 이 모음들과 결합하여 ‘ㄱ’나 ‘ㄴ’로 바뀌었다. 이러한 ‘ㅍ’의 변화는 현대 국어의 ‘ㅂ’ 불규칙 용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덥고, 덥더라, 더벼, 더브니>덥고, 덥더라, 더워, 더우니’에서 보듯이 15세기 중엽에 ‘덥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이 ‘ㅂ’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이 ‘ㅍ’으로 나타났다. ‘덥고, 덥더라’의 ‘ㅂ’은 당시 ‘ㅍ’이 음절 끝에서 ‘ㅂ’으로 소리 난 것을 표기한 것이고, ‘더벼, 더브니’의 ‘ㅍ’은 ‘ㅍ’이 뒤 음절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다가 ‘ㅍ’이 소멸하면서 ‘덥다’, ‘칩다(>춥다)’ 등 어간 말에 ‘ㅍ’을 가지고 있던 용언들이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불규칙적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 (2) 막슴>막음(>마음), 스시>스이(>사이)

(2)와 같은 ‘ㅌ’의 탈락은 16세기 문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ㅌ’의 변화는 현대 국어의 ‘ㅅ’ 불규칙 용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짓고, 짓더라, 지서, 지스니>짓고, 짓더라, 지어, 지으니’에서 보듯이 15세기 중엽에 ‘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이 ‘ㅌ’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이 ‘ㅌ’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ㅌ’이 소멸하면서 ‘짓다’, ‘넛다(>읷다)’ 등 어간 말에 ‘ㅌ’을 가지고 있던 용언들이 불규칙적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23004-0085]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국어의 ‘ㅍ’과 ‘ㅌ’은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음들이군.
- ② 15세기 국어의 ‘글밭’이 ‘글왁’로 변화한 것은 ‘ㅍ’이 ‘ㄷ’ 앞에서 ‘ㄱ’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치브니’는 어간 말음의 ‘ㅍ’이 뒤 음절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지서’가 ‘지어’로 변화한 것은 ‘ㅌ’의 소멸로 어간 말 ‘ㅌ’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⑤ 현대 국어의 ‘춥다’는 활용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용언이군.

[23004-0086]

0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굽다¹ [굽:따] 「동사」 활용 정보: 구워[구워], 구우니[구우니]

[…을] 「1」 불에 익히다.

㉠ 고구마를 화롯불에 구워 먹었다.

「2」 벽돌, 도자기, 옹기 따위의 흙으로 빚은 것이 굳도록 열을 가하다.

㉡ 옹기를 굽다.

어원: 굽다(15세기)

㉢ 북그며 구버 겹긔 먹더니(북으며 구워 마음껏 먹더니)

㉣ 陶師는 덮엇 굽는 사르미라(도사는 질그릇 굽는 사람이다)

굽다² [굽따] 「동사」 활용 정보: 굽어[구버], 굽으니[구브니]

한쪽으로 휘다.

㉤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으셨다. / 팔은 안으로 굽는다.

어원: 굽다(15세기)

㉥ 屈曲은 구블 시라(굴곡은 굽은 것이라)

㉦ 無憂樹는 가지 굽거늘 어마님 자브샤(무우수의 가지가 굽거늘 어머니가 잡으시고)

- ① ‘굽다¹’은 ‘굽다²’와 달리 타동사로 쓰인다.
- ② ‘굽다²’는 ‘굽다¹’과 달리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 ③ 어미 ‘-은’이 결합한 활용형은 ‘굽다¹’의 경우에는 ‘구운’으로, ‘굽다²’의 경우에는 ‘굽은’으로 나타날 것이다.
- ④ ‘굽다¹’과 ‘굽다²’는 모두 15세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이 ‘ㅍ’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⑤ ‘굽다¹’과 ‘굽다²’는 모두 15세기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이 ‘ㅂ’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23004-0087]

0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보배로운’의 ‘-롭-’, ‘복된’의 ‘-되-’, ‘사랑스러운’의 ‘-스럽-’ 등은 명사나 명사성 어근과 주로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특히 ‘-스럽-’은 다른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 ㉠ ‘-롭-’, ‘-되-’ 등과 결합한 형용사가 존재하는데 ‘-스럽-’이 결합한 말이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다. 가령 ‘일을 처리하기가 괴롭고 고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수고롭다’가 존재하는데 ‘수고스럽다’도 쓰이는 것은 ‘-스럽-’의 생산성이 높은 것, 즉 ‘-스럽-’이 많은 수의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 파생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 ① 국가 대표로 뽑히는 것은 여전히 영광된/영광스러운 일이다.
- ② 그녀의 문장에는 우아하고 신비로운/신비스러운 매력이 있었다.
- ③ 가장 걱정되는/걱정스러운 것은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의 건강 문제이다.
- ④ 아이들은 자유로운/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 내 철학이다.
- ⑤ 조국을 위해 싸우다 남은 이 상처가 나에게서 명예로운/명예스러운 훈장과 같다.

[23004-0088]

04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안은문장은 한 절이 그 속에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하나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이때 안겨 있는 절을 안긴절이라 하는데, 안긴절의 종류에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은 주로 전성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그런데 안긴절이 이루어질 때 전성 어미가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안긴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할 때 이를 서술절이라고 하는데, 서술절은 전성 어미 없이 실현된다. 또 인용절은 인용절이 될 절에 일반적으로 조사가 붙어 실현된다.

- ① ㉠: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었다.
- ② ㉡: 여름이 되자 키가 작은 채송화가 마당에 피었다.
- ③ ㉢: 바람이 거세지기 전에 산에서 빨리 내려가야겠다.
- ④ ㉣: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이 확실히 밝혀져서 다행이다.
- ⑤ ㉤: 기상청은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23004-0089]

05 <보기>를 바탕으로 선어말 어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어말 어미는 크게 높임법 관련 선어말 어미와 시간 관련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 높임법 관련 선어말 어미로는 주체 높임의 ‘-(으)시-’가 대표적이다. 시간 관련 선어말 어미에는 과거 시제의 ‘-었-/-았-/-였-’, 현재 시제의 ‘-는-/-ㄴ-’, 미래 시제의 ‘-겠-’ 등이 있다. 그런데 선어말 어미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문법적 장치로 쓰이기도 한다. ‘-겠-’은 화자의 추측 또는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겠-’과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 문어체에서는 ‘-(으)리-’가 쓰이기도 한다. 선어말 어미의 차례는 일정하여 그 순서를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 ㉠ 형님께서 이 회사에 (근무하시는군요./*근무하는시군요./근무하셨군요.)
 ㉡ 아마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내었겠다./*끝내졌었다./끝내었으리라.)
 ㉢ 먼저 (간다고/갔다고/먹는다고/먹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을 보니,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시간 관련 선어말 어미보다 앞서 결합하는군.
 ② ㉠을 보니,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와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었-’이 한 음절로 줄여 쓰일 수도 있군.
 ③ ㉡을 보니,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었-’이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보다 앞서 결합하는군.
 ④ ㉢을 보니,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 ‘-겠-’은 같은 시제를 나타내는 ‘-으리-’로 바뀌어 쓰이기도 하는군.
 ⑤ ㉢을 보니,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와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는 결합하는 여간에 따라 형태가 달리 선택되는군.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규범으로,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 표기상의 유의점,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자음, 단모음, 이중 모음의 표기 일람은 다음과 같다.

(1) 자음의 로마자 표기

ㄱ	ㄲ	ㅋ	ㄷ	ㄸ	ㅌ	ㅃ	ㅍ	ㅍ	ㅈ	ㅊ	ㅅ	ㅆ	ㅎ	ㄴ	ㅇ	ㄹ		
g, k	kk	k	d, t	tt	t	b, p	pp	p	j	jj	ch	s	ss	h	n	m	ng	r, l

(2) 단모음의 로마자 표기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3) 이중 모음의 로마자 표기

ㅑ	ㅓ	ㅕ	ㅗ	ㅛ	ㅜ	ㅝ	ㅟ	ㅛ	ㅜ	ㅞ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A]

우선 자음의 표기 일람에서 ‘ㄱ, ㄷ, ㅃ’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그리고 ‘ㄹ’은 모음 앞에서는 ‘r’,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되 ‘ㄹㄹ’은 ‘ll’로 적는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비음화나 유음화, 구개음화, 격음화(거센소리되기), ‘ㄴ’ 첨가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체언에서 ‘ㄱ, ㄷ, ㅃ’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어야 하고, 경음화(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모음의 표기 일람에서 ‘ㅑ’는 ‘i’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고,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23004-0090]

01 **윗글을 통해 <보기>의 ㉠~㉤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활동] 다음 제시된 고유 명사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어 보자.

- 신라[실라]: ㉠Sila
- 목호[무코]: ㉡Mukho
- 팔당[팔땅]: ㉢Palttang
- 백마[뱅마]: ㉣Baengma
- 광희문[광히문]: ㉤Gwanghimun

- ① ㉠: ‘ㄹ’은 ‘ll’로 적어야 하므로, ‘Silla’로 표기해야 옳겠군.
- ② ㉡: 체언에서 ‘ㄱ’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옳은 표기이겠군.
- ③ ㉢: 경음화(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Paltang’로 표기해야 옳겠군.
- ④ ㉣: 비음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표기이겠군.
- ⑤ ㉤: ‘니’는 ‘i’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어야 하므로, ‘Gwanghuimun’으로 표기해야 옳겠군.

[23004-0091]

02 **[A]를 참고할 때, 제시된 두 말의 로마자 표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와:왜 → 모음 표기에 ‘e’가 후행하는지의 여부가 다르다.
- ② 우:유 → 모음 표기에 ‘y’가 선행하는지의 여부가 다르다.
- ③ 아:와 → 모음 표기에 ‘w’가 선행하는지의 여부가 다르다.
- ④ 야:애 → 모음 표기에 ‘e’가 후행하는지의 여부가 다르다.
- ⑤ 에:웨 → 모음 표기에 ‘u’가 선행하는지의 여부가 다르다.

[23004-0092]

03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합성어는 단어 형성 방식이 일반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지의 여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명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등과 같은 구성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고, ‘용언 어간+명사’, ‘용언 어간+용언 어간’, ‘자립성이 없는 어근+명사’ 등과 같은 구성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접칼 어린이 퍼내다 보슬비 우러러보다

학생:

- ① ‘접칼’은 용언 어간에 명사가 직접 붙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② ‘어린이’는 용언의 관형사형에 명사가 붙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③ ‘퍼내다’는 용언의 연결형에 용언 어간이 붙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④ ‘보슬비’는 자립성이 없는 어근에 명사가 직접 붙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⑤ ‘우러러보다’는 용언 어간에 용언 어간이 직접 붙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23004-0093]

0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언니는 사그라져 가는 난로의 불씨를 ㉠살려 놓았다.
- 싱그러운 나물이 우리 학생의 입맛을 ㉡돋워 주었다.
- 우리가 먹을 파인애플이 세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
- 우리 오빠는 시골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 돈을 마련했다.
-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둑은 노끈에 ㉤감겨 있었다.

- ① ㉠: 피동사로, 접미사 ‘-리-’가 결합되어 있다.
- ② ㉡: 사동사로, 접미사 ‘-우-’가 결합되어 있다.
- ③ ㉢: 피동사로,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있다.
- ④ ㉣: 사동사로,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있다.
- ⑤ ㉤: 피동사로, 접미사 ‘-기-’가 결합되어 있다.

[23004-0094]

05 <보기>를 참고하여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손순득중」에서는 이어 적기나 거듭 적기의 표기 방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ㅅ, ㅆ, ㅈ’과 같은 경음(된소리) 계열 자음의 표기, 관형격 조사 ‘이/의’나 부사격 조사 ‘이/의’, 보조사 ‘은/는’, 명사형 어미 ‘-기’ 등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손순은 신라 흥덕왕 시 사람이라 경주 **ㅅㅅ**하 사라 어미 **치기** 지회러니 조고만 아히 이서 락양 어미 **ㅅㅅ** 앓거늘 순이 그 안해드려 날러 그로되 아히 어미 **ㅅㅅ** 아으니 **아히**는 가히 어드러니 와 어미는 두 번 **구ㅎ기** 어려온디라 ㅎ고

-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손순득중」 중에서

[현대어 풀이]

손순은 신라 흥덕왕 때 사람이라. 경주 땅에 살아 어미 모시기 지효(至孝)이더니, 조그만 아이가 있어 매양 어미의 밥을 빼앗거늘 순이 그 아내에게 일러 가로되, “아이가 어미의 밥을 빼앗으니, 아이는 가히 얻으려니와 어미는 두 번 구하기 어려운지라.” 하고

- ① ‘ㅅㅅ’에서 이어 적기, ‘ㅅㅅ’에서 거듭 적기의 표기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ㅅㅅ’에서 경음(된소리) 계열 자음의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어미’에서 부사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손순은’과 ‘아히는’에서 ‘은/는’이 보조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치기’와 ‘구ㅎ기’에서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경구개음 ‘ㅅ, ㅆ’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이 현상은 치조음 ‘ㄷ, ㅌ’이 뒤에 오는 고모음 ‘ㅣ’의 조음 위치의 영향을 받아 경구개음 ‘ㅅ, ㅆ’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구개음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려면 ‘ㅅ, ㅆ, ㅈ’의 조음 위치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세 국어의 ‘ㅅ, ㅆ, ㅈ’은 치음(齒音)이었는데, 근대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조음 위치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ㅅ, ㅆ, ㅈ’의 경우 치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었다고 추측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로, 구개음화 현상이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디나다>지나다, 티다>치다’와 같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모음 ‘ㅣ’나 반모음 ‘j’ 앞에 오는 ‘ㄷ’이나 ‘ㅌ’이 ‘ㅅ’이나 ‘ㅆ’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는 자음 체계에서 경구개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ㅅ, ㅆ, ㅈ’이 아직 치음이었던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없으며, 이들이 경구개음으로 바뀐 근대 국어 시기에 와서 구개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

둘째로 ‘ㅅ, ㅆ, ㅈ’ 뒤의 반모음 ‘j’가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모두 탈락한다는 점이다. ‘ㅅ, ㅆ, ㅈ’이 치음이던 중세 국어 시기에는 그 뒤에 반모음 ‘j’가 자유롭게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자랑’과 같은 구조의 고유어도 많았고, ‘창(倉)’과 ‘창(昌)’처럼 반모음 ‘j’의 유무로 그 음이 구별되는 한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ㅅ, ㅆ, ㅈ’이 경구개음으로 바뀌면 ‘j’와 조음 위치가 중복되어서 경구개음 뒤에서는 ‘j’가 모두 탈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안도 방언에서 ‘ㅅ, ㅆ, ㅈ’은 여전히 치조 부근에서 발음된다는 점이다. 평안도 방언에서는 ‘ㅅ, ㅆ, ㅈ’이 예전의 음가를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구개음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근거들은 ‘ㅅ, ㅆ, ㅈ’의 조음 위치가 치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23004-0095]

01 **윗글을 읽고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질문: ‘마디’와 ‘티끌’은 왜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를 겪지 않았을까?

근대 국어	현대 국어
ㅁ딛, ㅁ딛	마디
ㅌ꺄, ㅌ꺄	티끌

- ① ‘ㅅ, ㅆ’ 뒤에서는 반모음 ‘j’를 발음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ㅅ, ㅆ’의 조음 위치가 아직 치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 ③ ‘ㄷ, ㅌ’이 ‘ㅣ’와 만나는 환경이 형태소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④ 평안도 방언에서의 ‘ㅅ, ㅆ’은 경구개음으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⑤ 근대 국어 시기에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j’와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004-0096]

02 **윗글을 읽고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술이 걸려 있는 아궁이.
- ㉡ 그만 집에 가죠.
- ㉢ 오늘은 발일을 거들어야 한다.
- ㉣ 끝으로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 ㉤ 오늘 점심에는 감자를 썬 먹자.

- ① ㉠의 ‘술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소치]로 발음되겠군.
- ② ㉡의 ‘가죠’는 ‘ㅈ’ 뒤에서 반모음 ‘j’가 발음될 수 없으므로 [가조]로 발음되겠군.
- ③ ㉢의 ‘발일’은 ‘일’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겠군.
- ④ ㉣의 ‘끝으로’는 ‘ㅌ’ 뒤에 ‘ㅣ’가 아닌 ‘ㅡ’가 놓여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겠군.
- ⑤ ㉤의 ‘썬’가 현대 국어에서 [썬]로 발음되는 것은 ‘ㅈ’의 조음 위치가 경구개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겠군.

[23004-0097]

03 **다음 문장의 밑줄 친 표현 중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상이란 일정 시간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의 양상을 동작의 완료나 진행처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끝났거나 끝난 후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과 어떤 사건이 특정 시간 구간 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 진행상이 있다.

- ① 준비한 음식이 점점 식어 간다.
- ② 종소리를 들고서 교실을 나섰다.
- ③ 서우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본다.
- ④ 어제 학교에 가고 있는 아이를 불렀다.
- ⑤ 내 동생은 지금 백과사전을 읽는 중이다.

[23004-0098]

04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할 때 결합하는 어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체로 동사가 ‘-(느)니다, -느냐, -는, -는구나’와 결합하는 것과 달리, 형용사는 ‘-다, -(으)냐, -(으)ㄴ, -구나’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보통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려’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다음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해 볼까요?

웃다, 찾다, 젊다, 좋다, 시끄럽다

학생:

㉠

- ① ‘웃어라, 웃자’와 같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웃다’는 동사입니다.
- ② ‘찾으냐, 찾구나’와 같은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찾다’는 동사입니다.
- ③ ‘젊다, 젊구나’와 같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젊다’는 형용사입니다.
- ④ ‘좋으냐, 좋은’과 같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좋다’는 형용사입니다.
- ⑤ ‘시끄러우려’와 같은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시끄럽다’는 동사입니다.

[23004-0099]

05 <보기>를 읽고 유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거나 매우 비슷한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유의 관계라고 하고,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한다.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가 둘 이상 있을 경우 유의어들 사이에서는 피치 못할 충돌이 일어나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하게 된다. 유의어 경쟁은 경쟁 관계에 있는 유의어가 계속 함께 사용되는 공존, 한쪽은 계속 쓰이고 한쪽은 사라지는 생존과 소멸,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단어가 한 단어로 합쳐지는 합성, 한쪽의 의미가 변화하는 의미 변화 중 하나의 결과를 가져온다.

- ① ‘틈새’는 유의어 경쟁을 하던 ‘틈’과 ‘새’가 합성한 것이겠구나.
- ② ‘달걀’과 ‘계란’은 유의어 경쟁의 결과 ‘계란’의 의미가 변화하였겠구나.
- ③ ‘시늉’과 ‘흉내’는 여전히 유의어 경쟁을 하며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구나.
- ④ ‘즈믄’과 ‘천’은 유의어 경쟁을 하다가 ‘즈믄’은 소멸하고 ‘천’이 생존하였겠구나.
- ⑤ ‘저녁’과 ‘나조’는 유의어 경쟁을 하다가 ‘저녁’은 생존하고 ‘나조’는 소멸하였겠구나.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 표기법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라는 두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음주의란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것으로,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이라도 다르게 발음되면 달리 적는다. 반면 표의주의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이다. 한글이 창제된 이래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표기법은 주로 표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우선 중세 국어에서는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앞 형태소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것이 이어 적기이다. 또한 음운 현상이 적용된 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형태소의 결합 과정에서 적용되는 여러 음운 현상들을 표기에 반영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다. 현대 국어의 경우 일부 음운 현상만 표기에 반영하고 대부분은 잘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 뼈도(ㅼ-+-어도), 아눈(알-+-눈), 알코(알-+-고)

(나) 든노라(들-+-노라) ↔ 들눈(들-+-눈)

(가)는 중세 국어에서 음운 현상이 적용된 형태를 표기한 예이다. ‘ㄴ’ 탈락, 유음 탈락, ‘ㅎ’이 다른 자음에 선행하는 경우의 거센소리되기는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특히 ‘ㄴ’ 탈락이나 유음 탈락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현대 국어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반면 (나)는 음운 현상이 적용된 형태대로 표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사례로, 비음화가 대표적이다.

(다) 빛과(빛+과), 높고(높-+-고), 비왈디(비왈-+-디)

(라) 밧즈왓더니(밭-+-즈왓더니), 듯보다(들-+-보다), 밧싣지(밧+싣지), 꺄(꺄)

(다)는 중세 국어 종성 표기의 예이다. 『훈민정음』에서 종성 표기에 8개의 자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한 것은 당시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8가지였다는 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8개의 종성에 속하지 않는 자음이 종성에 놓이면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음운 현상이 표기에도 반영되었다. 한편 16세기 이후 종성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면서 종성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하게 되었다. 그러나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ㄷ’ 대신 ‘ㅅ’을 사용하였다. (라)는 ‘밭-, 들-’처럼 원래 ‘ㄷ’으로 끝나거나 ‘밧, 꺄’처럼 원래 ‘ㅌ’으로 끝나므로 그 말이 종성에서 ‘ㄷ’으로 표기되던 종성이 모두 ‘ㅅ’으로 표기되었음을 보여 준다. 발음상으로는 ‘ㄷ’이지만 표기상으로는 ‘ㅅ’으로 적은 것이다. 그리하여 근대 국어 시기의 경우 발음상의 7종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지만 표기상으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자모가 사용되어 발음과 표기가 서로 불일치하게 된다.

01

[23004-010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의 ‘뼈도’는 앞 형태소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는 것이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 ② (가)의 ‘아는’은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적용된 유음 탈락이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 ③ (가)의 ‘알코’는 ‘ㅎ’이 다른 자음에 선행하는 경우의 거센소리되기가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 ④ (나)의 ‘든노라’는 ‘ㄷ’에 적용된 비음화가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 ⑤ (다)의 ‘빛과’는 음절 말에서 ‘ㅈ’이 ‘ㅅ’으로 발음되는 변화가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02

[23004-010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然 ㄱ ㅎ ㄷ ㄴ ㅂ ㅁ ㅅ ㄹ 八字可足用也 如 빛꽃爲梨花 엿의갓爲狐皮 而 ㅅ 字可以通用 故只用 ㅅ 字

그러나 (중성은) ‘ㄱ, ㅎ, ㄷ, ㄴ, ㅂ, ㅁ, ㅅ, ㄹ’의 8자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것은 ‘빛꽃’(梨花*에 해당), ‘엿의갓’(狐皮*에 해당)은 ㅅ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다만 ㅅ자를 씀과 같다.

- 『훈민정음』 해례 중성해

*梨花: 배꽃.

*狐皮: 여우 가죽.

- ① ‘빛꽃’과 ‘엿의갓’은 표의주의 원리에 따른 표기 형태에 해당하겠군.
- ② ‘ㄱ, ㅎ, ㄷ, ㄴ, ㅂ, ㅁ, ㅅ, ㄹ’은 당시 중성에서 발음된 자음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8자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것은 표음주의 원리에 따른 중성 표기로 볼 수 있겠군.
- ④ ‘빛꽃’의 중성에 쓰인 ‘ㅅ’과 ‘ㅈ’은 근대 국어 시기에는 모두 표기가 ‘ㄷ’으로 통일되었군.
- ⑤ ‘ㅅ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다만 ㅅ자를 씀’이라는 것은 중성의 ‘ㅈ’과 ‘ㅊ’이 ‘ㅅ’으로 발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이겠군.

[23004-0103]

04 <보기>를 바탕으로 안은문장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안은문장은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이때 안겨 있는 절을 안긴절이라 하고, 안긴절의 종류로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들 수 있다. 안긴절은 형성 과정에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 | |
|-------------------------|--------------------------|
| ㉠ 명수가 이번 사건의 범인임이 분명하다. | ㉡ 명수는 자전거가 지나가도록 길을 비켰다. |
| ㉢ 명수가 빵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 ㉣ 명수는 학교에 가기에 바빴다. |
| ㉤ 명수가 엄마가 사 오신 빵을 먹었다. | |

- ① ㉠과 ㉢의 안긴절은 종류가 다르고 전체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도 다르다.
 ② ㉢의 안긴절은 ㉤의 안긴절과 달리 안긴절 속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③ ㉤은 ㉠과 달리 안긴절을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한다.
 ④ ㉡과 ㉣의 안긴절의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⑤ ㉡과 ㉣의 안긴절은 종류는 다르나 전체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같다.

[23004-0104]

0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같은 반 친구인 '준호'와 '지우'가 하룻길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준호: 친구가 전시회 초대권을 두 장 줬는데, 이번 주말에 뭐 해?

지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 어, ㉠그거 혹시 나한테 전시회에 같이 가자는 뜻?

준호: 괜찮다면, (초대권을 꺼내서 보여 주면서) 마침 전시회 주제가 '바다의 시선에서 본 해양 생태계'인데, ㉡절때 국어 수업 시간에 네가 평소 해양 환경 보호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발표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 ㉢더군다나 미술 수행 평가인 전시회 감상문 쓰기도 해야 하고.

지우: 재미있겠다. 전시회는 어디에서 열려?

준호: (들고 있던 초대권을 확인하면서) ㉣이거 보니까 장소는 '○○ 해양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네.

지우: 우아, ㉤거기 우리 집에서 진짜 가까워.

- ① ㉠은 앞에서 나온 '준호'의 발화를 가리킨다.
 ② ㉡은 과거의 시간을 가리키는 데에 쓰이고 있다.
 ③ ㉢은 앞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④ ㉣은 가리키는 대상이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다.
 ⑤ ㉤은 가리키는 장소가 듣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나타낸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ㄹ’ 탈락은 ‘ㄹ’이 ‘ㄴ, ㅅ’ 등과 같은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현대 국어의 ‘ㄹ’ 탈락은 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적용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체언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에는 ‘ㄹ’ 탈락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거나 ㉠ 복합어를 만들 때에는 ‘ㄹ’ 탈락이 일어난다. 복합어를 만들 때의 ‘ㄹ’은 ‘ㄴ, ㅅ’ 외에 ‘ㅈ, ㅊ’ 앞에서도 탈락한다. 그러나 ㉡ 복합어에 적용되는 ‘ㄹ’ 탈락은 동일한 환경이라도 ‘ㄹ’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예외가 많다.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ㄹ’ 탈락이 일어나는 현상은 15세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가령 ‘알-’, ‘울-’, ‘살-’ 뒤에 ‘-ㄴ/는’이 결합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아ㄴ, 우ㄴ, 사ㄴ’으로 실현되었다. 유음화가 생긴 것은 ‘ㄹ’ 탈락보다 후대의 일이다. 유음화는 16세기부터 조금씩 나타난다. 이러한 시기 차이 때문에 용언의 활용형이나 복합어에서 이전에 ‘ㄹ’ 탈락의 적용을 받은 형태는 유음화가 새로 생긴 이후에도 ‘ㄹ’ 탈락이 일어난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유음화는 오로지 ‘ㄹ’ 탈락이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던 ‘ㄹㄴ’에만 적용될 수 있었다.

한편 역사적으로 볼 때 ‘ㄴ’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은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만 ‘ㄹ’ 탈락이 일어났고, 다른 경우에는 ‘ㄹ’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 가령 ‘끓-, 숨-’과 같이 ‘ㄹ’계 자음군을 가진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15세기에 이미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ㅎ’이 탈락하였다. 이때에는 ‘ㄴ’ 앞에서도 ‘ㄹ’이 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ㄹ’계 자음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깨’와 같은 자음군을 가지는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15세기에는 음절 중성에서 ‘ㄹ’과 ‘ㅂ’이 모두 받음되다가 이후에 ‘ㅂ’이 탈락하면서 ‘ㄹ’과 ‘ㄴ’이 직접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ㄹ’ 탈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22004-0075]

01

㉠, ㉡의 사례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①	소나무	나날이
②	돌도끼	물집
③	바느질	단골집
④	화살	버드나무
⑤	여닫이	아드님

02

[22004-0076]

〈보기〉의 ㉠~㉥에 나타난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괴는 거시며 ㉠ 늑늑(늑-+-늑) 거시며 <<1459 월석 1:11>>
[기는 것이며 나는 것이며]
- 네브터 ㉡ 알늑(알-+-늑) 낫病이 도커든 <<1481 두시-초 9:16>>
[옛부터 앓는 잇병이 좋아지거든]
- 바람비 즈조물 ㉢ 슬노라(슬-+-노라) <<1481 두시-초 16:35>>
[바람과 비가 잦은 것을 슬퍼한다.]
- ㉣ 솔립(솔+립) ㄱᄃᆞᆫ ㄱᄃᆞᆫ 밍그라 <<1653 벽신 14ㄱ>>
[솔잎을 가늘게 가루 만들어]
- 쇠를 ㉤ 뽏늑(뽏-+-늑) 듯흐니 <<1481 두시-초 17:30>>
[쇠를 밟는 듯하니]

- ① ㉠: 용언의 어간 받침 ‘ㄱ’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는군.
- ② ㉡: 15세기에 이미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ㅎ’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는군.
- ③ ㉢: 어간의 받침이 ‘ㄱ’로 시작하는 겹받침인 경우에는 ‘ㄱ’이 ‘ㄴ’ 앞에서 탈락하지 않았군.
- ④ ㉣: 합성어에서 일어난 유음화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였군.
- ⑤ ㉤: 15세기에는 ‘ㄱ’과 ‘ㅂ’이 모두 발음되었고, 16세기 이후 유음화가 이루어졌겠군.

[22004-0077]

03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의 품사와 문장 성분을 짝지은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보기 |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부류이다. 한편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특정한 통사적·의미적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가리킨다. 단어는 문장에서 문장 성분으로도 기능한다. 예를 들어 ‘상우 책 읽는다.’와 같은 문장에서 ‘책’은 품사로는 명사이고, 문장 성분으로는 목적어이다. ‘읽는다’의 경우 품사로는 동사이고,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이다.

- 너는 ㉠ 외국 살 때 ㉡ 뭐 좋아했니?
- ㉢ 우리 아들 ㉣ 오늘 ㉤ 반장 됐어.

		품사	문장 성분
①	㉠	명사	부사어
②	㉡	대명사	목적어
③	㉢	관형사	관형어
④	㉣	부사	부사어
⑤	㉤	명사	보어

[22004-0078]

04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 어미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국어의 어미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단어의 맨 뒤에 놓이는 어미이고, 선어말 어미는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놓이는 어미로, 높임 관련 선어말 어미와 시간 관련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누어지는데, 종결 어미는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하며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연결 어미는 절을 연결하거나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그 용언이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미로 명사형, 부사형, 관형사형 어미가 있다.

• 예전에는 아버지께서 화단을 ㉠ 크게 ㉡ 가꾸셨고, 요즘은 어머니께서 ㉢ 작은 텃밭을 ㉣ 일구고 ㉤ 계십니다.

- ① ㉠~㉣에는 모두 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② ㉠에는 부사형 어미가 사용되었고, ㉢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과 ㉣에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그 용언이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④ ㉡에는 시제 관련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고, ㉣에는 시제 관련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에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면서 문장을 종결하는 역할을 하는 어미가 사용되었다.

[22004-0079]

05 <보기>의 (가)~(마)에 대한 학생의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면 홑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입니다. 겹문장에서는 문장 성분의 생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에 대해 말해 볼까요?

- (가) 그는 줄넘기를 하려고 집을 나섰다.
- (나)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그는 싫어한다.
- (다) 저 큰 나무에는 새가 많이 살고 있다.
- (라) 그가 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 (마) 우리가 지난주에 갔던 수족관에는 동물들이 많았다.

학생:

- ① (가)는 두 절의 주어가 동일하여 주어 하나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 ② (나)는 두 절의 목적어가 동일하여 목적어 하나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 ③ (다)는 관형사절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 ④ (라)는 관형사절의 보어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 ⑤ (마)는 관형사절의 부사어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22004-0080]

06 <보기>의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 단어가 둘 이상의 반의어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 특히 다의어의 경우 여러 개의 반의어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좋다'의 반의어는 '(굳이) 싫다'가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나쁘다'가 될 수도 있으며, '(비위가) 약하다'가 될 수도 있다.

	단어	반의어
①	독하다	순하다, 약하다
②	쓰다	지우다, 달다
③	서다	앉다, 무더지다
④	열다	닫다, 다물다
⑤	벗다	입다, 신다

[22004-0081]

01

(가)를 참고하여 (나)의 언어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ㅃ		ㄱ	
	된소리	ㅃ	ㅆ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거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나) 언어 자료

㉠: 밥물[밤물], ㉡: 앞집[압쩍], ㉢: 신라[실라], ㉣: 앞마당[암마당], ㉤: 맞받이[만빠지]

- ① ㉠~㉣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에는 변화가 없다.
- ② ㉠, ㉡를 고려할 때 ㉣의 ‘ㅍ’의 발음은 ‘파열음 거센소리 → 파열음 예사소리 → 비음’으로 바뀌었다.
- ③ ㉠, ㉢ 모두 앞 음절 받침의 조음 방법이 달라졌다.
- ④ ㉡, ㉤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첫음절 받침이 동일한 조음 위치의 파열음 예사소리로 바뀌었다.
- ⑤ ㉤에는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 모두가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음절이 두 개 있다.

[22004-0082]

02 사전에서 ‘뜨다’를 검색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뜨다¹ [뜨다]「동사」

①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른다.

②

「1」착 달라붙지 않아 틈이 생기다.

「2」(비유적으로) 차분하지 못하고 어수선하게 들떠 가라앉지 않게 되다.

⋮

뜨다² [뜨다]「동사」

「1」감았던 눈을 벌리다.

「2」처음으로 청각을 느끼다.

「3」무엇을 들으려고 청각의 신경을 긴장시키다.

뜨다³ [뜨다]「형용사」

「1」행동 따위가 느리고 더디다.

「2」감수성이 둔하다.

「3」입이 무겁거나 하여 말수가 적다.

「4」날이 무디다.

「5」다리미, 인두 따위의 쇠붙이가 잘 달구어지지 않는다.

「6」비탈진 정도가 둔하다.

⋮

- ① ‘뜨다¹’~‘뜨다³’은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군.
- ② ‘뜨다¹’~‘뜨다³’은 모두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가지고 있군.
- ③ ‘뜨다²’는 ‘벌리다, 느끼다’와 의미상 상하 관계를 이루겠군.
- ④ ‘뜨다³’은 ‘더디다, 둔하다, 무디다’와 같은 단어와 유의 관계에 있겠군.
- ⑤ ‘뜨다¹-①’과 반의 관계를 가진 말은 ‘방향’과 관련하여 다른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겠군.

[22004-0083]

03

〈보기〉를 참조하여 제시된 문장들의 서술어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 성분 중 서술어는 ‘걷다’, ‘뒹다’처럼 하나의 어절로 성립하는 것도 있고,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는 것도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 ‘그 섬에 가고 싶다.’에서처럼 ㉠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연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있다. 다음으로 본용언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이 있다. 이는 다시 ‘기러기가 울며 간다.’에서처럼 ㉡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나는 집에서 밥을 먹고 간다.’에서처럼 ㉢ 따로따로 일어나는 동작이 연결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세 개 이상의 용언이 연결되어 있는 구성은 앞의 ㉠~㉢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① ‘그는 편지를 쓰고 있지 않다.’ → 본용언 ‘쓰다’에 보조 용언 ‘있다’와 ‘않다’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② ‘우리 걸으면서 이야기합니다.’ → ‘걷다’와 ‘이야기하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이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③ ‘오늘은 내리는 비를 맞으며 걷고 싶다.’ → ‘맞다’와 ‘걷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이고, 여기에 보조 용언 ‘싶다’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 ㉡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④ ‘내일 보낼 편지를 써 두어야 한다.’ → 본용언 ‘쓰다’와 ‘두다’가 연결된 상태에, 보조 용언 ‘하다’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과 ㉢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⑤ ‘동생은 숙제를 하고 나서 쉬었다.’ → 본용언 ‘하다’에 보조 용언 ‘나다’가 연결된 상태에, ‘하다’와 따로 일어나는 동작인 ‘쉬다’가 결합하였으므로 ㉠과 ㉢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22004-0084]

0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내가 최근에 산 책은 값이 아주 비싸다.
 ㉡: 부지런한 선영이는 아침에 운동하기를 좋아한다.
 ㉢: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서울은 인구가 매우 많다.
 ㉣: 오늘 우리가 자료를 찾아본 도서관은 규모가 컸다.
 ㉤: 친구들을 지켜보던 수현이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나갔다.

- ① ㉠~㉣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절을 가지고 있다.
- ② ㉠, ㉢,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가지고 있다.
- ③ ㉠은 목적어가 생략된 절을 가지고 있고, ㉣은 부사어가 생략된 절을 가지고 있다.
- ④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관형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⑤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가지고 있고,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가지고 있다.

[22004-0085]

05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어머니: 수현아, ㉠ 지금이 대체 몇 시니? 새벽 1시야.

딸: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과제 끝내야 해요.

어머니: ㉡ 어쩔, 우리 딸이 이렇게 책임감이 강했었다니……. 그런데 피곤해서 어떡하니?딸: 그렇긴 해요. 다른 건 다 끝냈는데 ㉢ 이 과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네요.

어머니: 그렇구나. 그런데 내일 할머니 댁에 갈 수 있겠니?

딸: ㉣ 못 갈 거 같아요. 급한 약속이 생겼거든요.어머니: ㉤ 그렇게 말했었나?

딸: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대신 토요일에 갈게요.

어머니: 그래 알았다. 얼른 하고 자렴.

- ①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 ② ㉡: 감탄사를 사용하여 상대의 발화가 의외임을 나타낸다.
- ③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보다는 행위의 대상에 대한 강조를 나타낸다.
- ④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상황이 불가피함을 나타낸다.
- ⑤ ㉤: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전 발화 내용을 나타낸다.

[22004-0086]

06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孔:공자·즈 | 曾중자·즈드려 ㉡ 닐·러 곶·샤·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 슬·흐
 父·부母:모·씩 ㉣ 받·즈·온 거·시·라 敢:감·히 혈·위 상·히·오·디 아·니:흠·이 ㉤ :효·도·인 ㉥ 비·르·소
 미·오 ·몸·을 세·워 道:도·를 行·행·하·야 ㉦ 일:흠·을 後:후世:세·에 :베·퍼 ·써 父·부母:모를 :현·더
 케 :흠·이 :효·도·인 ㉧ ㅁ·춤·이니·라

- 『소학언해(小學諺解)』

[현대어 풀이]

공자께서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므로, 감히
 험하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풀어
 이로써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끝이다.

- ① ㉠과 ㉤에서 현대 국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조사를 찾을 수 있다.
- ② ㉢와 ㉦에는 그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의 해당 어휘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다.
- ③ ㉥와 ㉧를 통해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가 같이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는 현대 국어와 달리 단어 첫음절의 ‘ㄴ’ 앞에 ‘ㄴ’이 오지 못하는 제약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 ⑤ ㉤에 포함된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에서처럼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는 뜻을 나타내는 데 쓰였음을 보여 준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이 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음운 현상이다. 현대 국어의 종성에서 발음 가능한 자음의 최대 개수는 하나인데,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는 경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는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표준 발음에서 ‘값’은 겹받침 ‘ㅈ’ 중 ‘ㅅ’이 탈락하여 [갑]으로 발음되고, ‘삶’은 겹받침 ‘ㅉ’ 중 ‘ㄹ’이 탈락하여 [삼]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값이[갑씨]’, ‘삶은[살:믄]’ 등과 같이 겹받침 중 뒤에 있는 자음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어 발음된다.

현대 국어의 자음군 단순화 양상은 자음군을 구성하는 자음들의 음운론적 성격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음운론적 성격을 보면 자음은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음은 자음 중에서도 기류의 흐름이 방해를 많이 받는 부류로 파열음(ㅂ, ㅃ, ㅍ, ㄸ, ㅌ, ㅍ, ㅊ, ㅋ, ㆁ, ㆁ, ㆁ), 마찰음(ㅅ, ㅆ, ㅎ), 파찰음(ㅈ, ㅉ, ㅊ)이 여기에 속하며 공명음은 기류의 흐름이 방해를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구강이나 비강의 울림을 일으켜 발음되는 부류로 비음(ㅁ, ㄴ, ㅇ)과 유음(ㄹ)이 여기에 해당한다. ㉠ 공명음과 장애음으로 구성된 자음군의 경우를 보면, 자음군을 구성하는 자음 중 주로 장애음이 탈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공명음인 ‘ㄴ’과 장애음인 ‘ㅎ’으로 구성되어 있는 ‘ㄴㅎ’에서는 ‘ㄴ’과 ‘ㅎ’이 탈락하고 ‘ㄴ’이 남는다. 그러나 ‘ㄹ’이 포함된 자음군의 경우 예외가 많으며 후행하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 자음군 단순화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는 등, 각 자음의 음운론적인 성격을 고려해 겹받침의 발음을 기능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겹받침의 표준 발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야 한다.

자음군 단순화와 다른 음운 현상이 중복되어 일어날 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순서는 어떤 음운 현상과 함께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읽고’, ‘넓다’에서 ‘ㄹ’은 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바꾸지 않는 데도 결과적으로 [일꼬], [널따]와 같이 발음된다. 이는 ‘ㄹ, ㅉ’의 ‘ㄱ, ㅂ’ 뒤에서 먼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후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ㄱ, ㅂ’이 탈락하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2004-0087]

01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삶만[삼:만]’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다.
- ② ‘읽어[일겨]’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 ③ ‘값있는[가빈느]’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 ④ ‘많겨든[만:커든]’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 ⑤ ‘넓고[널꼬]’는 된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다.

02

[22004-008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표준 발음법 자료]

제10항 겹받침 ‘ㄷ’, ‘ㄷ’, ‘래, 려, 래’,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ㅍ]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리, 려, 래’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ㄹ, ㅍ]으로 발음한다.

선생님: 표준 발음법 자료를 통해, 겹받침이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발음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겹받침을 구성하는 자음들의 음운론적 성격을 고려하여, 윗글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단,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습 활동]

다음은 표준 발음 자료이다. 윗글의 ㉠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보자.

앉다[안따], 여덟[여덜], 외곶[외곶], 읊는[음는], 활는[할른]

- ① ‘앉다’의 표준 발음이 [안따]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② ‘여덟’의 표준 발음이 [여덜]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③ ‘외곶’의 표준 발음이 [외곶]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④ ‘읊는’의 표준 발음이 [음는]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⑤ ‘활는’의 표준 발음이 [할른]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2004-0089]

03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들다¹「동사」

[1]【…에】【…으로】

「1」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 숲속에 드니 공기가 훨씬 맑았다.

「2」빛, 별,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다. ♣ 오후가 되면 햇빛이 안방으로 든다.

[2]

어떤 때, 철이 되거나 돌아오다. ♣ 밤이 들자 기온이 떨어졌다.

들다²「동사」

날이 날카로워 물건이 잘 베어지다. ♣ 칼이 잘 들다.

들다³「동사」

[1]【…을 …에】

손에 가지다. ♣ 꽃을 손에 든 신부.

[2]【…을】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 ♣ 역기를 번쩍 든 역도 선수

- ① 들다²는 자동사로 쓰인다.
- ② 들다³-[1]은 들다¹-[2]에 비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더 많다.
- ③ 들다¹-[1]-「2」의 용례로 ‘아침이면 이 방에 별이 잘 들었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들다³-[2]의 반의어가 쓰인 예로 ‘쌀가마니를 바닥에 내리다.’를 제시할 수 있다.
- ⑤ 들다¹-[1]-「1」을 활용한 관용 표현이 사용된 예로 ‘그의 영향력은 말 한마디에 온 나라를 들었다 놓을 정도였다.’를 제시할 수 있다.

[22004-0090]

04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안은문장 구성이나 이어진문장 구성에서는 두 절에 동일한 성분이 중복되어 쓰이거나 두 절의 성분이 의미하는 대상이 동일할 때 둘 중 하나의 성분이 생략되거나 다른 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가령, ‘나는 집에 가기가 싫다.’에서는 명사절인 ‘집에 가기’의 주어인 ‘나는’이 안은문장의 주어인 ‘나는’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 ㉠ 우리는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 ㉡ 아버지는 내 생일에 새 자전거를 사 주실 것을 약속했다.
- ㉢ 아들 내외는 저희를 집으로 부른 이유를 내게 물었다.
- ㉣ 나무꾼은 산신령에게 자기의 도끼를 찾아 달라고 말했다.
- ㉤ 그는 부지런하므로 필시 성공할 것이다.

- ① ㉠: 명사절의 주어가 안은문장의 주어 ‘우리는’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 ② ㉡: 관형사절의 주어가 안은문장의 주어 ‘아버지는’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 ③ ㉢: 관형사절의 목적어가 의미하는 대상이 안은문장의 주어가 의미하는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명사로 바뀌었다.
- ④ ㉣: 인용절의 관형어가 의미하는 대상이 안은문장의 주어가 의미하는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명사로 바뀌었다.
- ⑤ ㉤: 앞뒤 절의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가 한 번만 나타났다.

[22004-0091]

0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음운 조건에 따라 어간 말음이 ‘ㄱ, ㅂ, ㅅ, ㅎ’일 때는 ‘-습-’, ‘ㄷ, ㅌ, ㅈ, ㅊ’일 때는 ‘-줍-’, 모음이나 ‘ㄴ, ㄹ’일 때는 ‘-습-’으로 실현되었다. 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줍-, -습-’은 각각 ‘-술-, -줄-, -술-’으로 실현되었다.

[보기 2]

須達이 護彌드려 무로되 主人이 므슴 차바닐 손소 돌녀 밍그노닛가 太子를 ㉠ 請흐스빠 ㉡ 이 받즈보려 ㅎ노닛가 大臣을 ㉢ 請흐야 이바도려 ㅎ노닛가

護彌 닐오되 그리 아닝다

須達이 썸 무로되 婚姻 위흐야 아스미 오나든 ㉣ 이바도려 ㅎ노닛가

護彌 닐오되 그리 아니라 부터와 중과를 ㉤ 請흐스보려 ㅎ닝다

- 『석보상절』 권6

[현대어 풀이]

수달이 호미더러 묻되 “주인이 무슨 음식을 손수 다녀 만드오? 태자를 청하여 대접하려 하오? 대신을 청하여 대접하려 하오?”

호미 이르되 “그런 것이 아니오.”

수달이 또 묻되 “혼인을 위하여 친척이 오거든 대접하려 하오?”

호미 이르되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와 중을 청하려 하오.”

- ① ㉠과 ㉡을 비교해 보면, ‘수달’이 ‘태자’는 높이고 ‘대신’은 높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과 ㉢을 비교해 보면, ‘수달’이 ‘주인’은 높이고 ‘아스’는 높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보면, ‘호미’가 ‘부터’는 높이고 ‘중’은 높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과 ㉤을 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습-’으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보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말음이 ‘ㅍ’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004-0092]

01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존 명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문장에 쓰이므로 문장의 첫머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일부 의존 명사는 격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보이기도 하고,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나 후행하는 서술어가 제한되기도 한다. 한편 의존 명사 중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가 있다. 일부 자립 명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단위성 의존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 ①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를 의미하는 ‘김’은 부사격 조사 ‘에’와만 결합하므로 격 조사 결합의 제약을 보이는 의존 명사이다.
- ② 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인 ‘바람’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의 뒤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가 제한되는 의존 명사이다.
- ③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듯이’는 그 뒤에 ‘없다’나 ‘있다’만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후행하는 서술어에 제한이 있는 의존 명사이다.
- ④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인 ‘개’는 의존 명사로만 쓰이는 단어이다.
- ⑤ 자립 명사인 ‘숟가락’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단위성 의존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22004-0093]

0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어머니가 담근 김치는 정말 맛이 좋다.
- ㉡ 나는 친구에게 오래전에 쓴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 ㉢ 그는 많은 친구들이 자신을 필요로 함을 깨달았다.

- ① ㉠, ㉡, ㉢에는 모두 두 개의 절이 안겨 있다.
- ② ㉠의 안은문장의 주어는 ‘어머니가 담근 김치는’이고, 서술어는 ‘맛이 좋다’이다.
- ③ ㉡의 안은문장의 서술어는 ‘결심했다’이고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 ④ ㉠, ㉢에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안겨 있고,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안겨 있다.
- ⑤ 명사절에 조사가 결합하여 ㉡에서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22004-0094]

03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예인: 내일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 평가가 있는데,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난 정확하게 발음하고 싶거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승주: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어떤 발음이 어려워?

예인: 응. 어려운 부분에 밑줄 쳐 두었어.

등심초

꽃잎은 하얗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승주: ㉠

- ① ‘꽃잎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니까 [꼐니푼]으로 발음해야 해.
- ② ‘없네’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가 일어나니까 [엄:네]로 발음해야 해.
- ③ ‘맺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니까 [맷찌]로 발음해야 해.
- ④ ‘못하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니까 [모타고]로 발음해야 해.
- ⑤ ‘풀잎만’은 ‘ㄴ’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일어나니까 [풀님만]으로 발음해야 해.

[22004-0095]

04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우리가 어떤 문장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때 동시에 사실로 인정되는 다른 문장이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정우가 유리창을 깨뜨렸다.’라는 문장에는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문장의 의미 속에 포함된 다른 의미를 함의라고 합니다. 함의는 아주 일반적인 언어적 속성이기 때문에 함의를 갖는 문장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다음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료>

- ㉠ 저것은 펭귄이다. — 저것은 새이다.
- ㉡ 그가 집에서는 말을 잘한다. — 그가 다른 곳에서 말을 잘 안 한다. 그가 다른 곳에서 말을 잘하는지 어떤지 잘 모른다.
- ㉢ 우리 팀은 우승에 실패했다. — 우리 팀은 우승에 성공하지 못했다.
- ㉣ 진호는 연지의 남편이다. — 연지는 진호의 아내이다.
- ㉤ 나는 오늘 책방에 책을 사러 왔다. — 나는 오늘 서점에 책을 사러 왔다.

- ① ㉠은 ‘펭귄’과 ‘새’가 상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앞 문장이 뒤 문장을 함의한다.
 ② ㉡은 보조사 ‘는’이 ‘대조’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앞 문장이 뒤의 두 문장 중 한 문장을 함의할 수 있다.
 ③ ㉢은 ‘실패’와 ‘우승’이 반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한다.
 ④ ㉣은 ‘남편’과 ‘아내’가 반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한다.
 ⑤ ㉤은 ‘책방’과 ‘서점’이 동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한다.

[22004-0096]

0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 ㉡에 들어갈 형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현대 국어의 의문 대명사 ‘무엇’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 의문 대명사의 단독형은 ‘므스’인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므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므스’, 부사격 조사 ‘와/과’ 앞에서는 ‘므슴’으로 나타난다.

- 나그내여 너는 쯔 성이 ㉠고. <<변노 상:44>>
현대어 풀이: 나그네여, 너는 또 성이 무엇인고?
- 善知識아 定慧는 ㉡과 곧 ㅎ뇨. <<육조 중:6>>
현대어 풀이: 선지식아, 정혜는 무엇과 같은가?

	㉠	㉡
①	므스	므스
②	므스	므슴
③	므슴	므스
④	므슴	므슴
⑤	므슴	므슴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든 단어들은 의미를 지니므로 단어들의 관계는 의미를 중심으로 관찰될 수 있다. 그간 어휘의 의미 관계는 계열 관계와 결합 관계로 논의되어 왔다. () 낱씨'에서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는 단어들은 '시원한', '선선한'이나 '따뜻한', '추운'처럼 다양하다. 이들은 선택 가능한 단위로서 '시원한'과 '선선한'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인 유의 관계를, '따뜻한'과 '추운'은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거나 대립하는 의미 관계인 반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문장의 동일 위치에 넣을 수 있는 선택항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계열 관계라 한다. 유의 관계나 반의 관계 외에도 계열 관계의 예로 상하 관계를 들 수 있다. 상하 관계는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 간 관계를 가리킨다. 상하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은 상위어, 하위어로 지칭되며, 상위어보다 하위어가 의미 자질을 더 많이 갖는다. 그리고 계층적 구조 내에서는 계층을 달리하여도 단어들의 위계 관계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조류-핑-장끼'에서 '조류'와 '핑', '핑'과 '장끼'는 모두 상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계층적 위계 관계에서 '조류'와 '장끼' 역시 상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류'와 '핑', '핑'과 '장끼', '조류'와 '장끼'는 모두 상위어와 하위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핑'이 [+조류], [+핑과]의 의미 자질을 갖는다면 '장끼'는 거기에 [+수컷]이라는 의미 자질을 더 갖게 된다. 또한 상하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은 하위어가 상위어를 함의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관계인 일방 함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준다.'에서 '반려동물' 대신 상위어인 '동물'로 교체해도 의미상 문제가 없지만, 하위어인 '강아지'로 교체하면 의미상 문제가 생긴다.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강아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하위어를 상위어로 교체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결합 관계는 한 문장 안에서 단어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양상에 초점을 두어 논의된다. 문장 내 단어들은 문법적, 의미적으로 결합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단어들의 결합 관계가 자연스럽게 않은 경우도 있다. 이때 나타나는 제약을 포괄적으로 공기(共起) 제약이라고 한다. 공기 제약을 위반한 예로는 의미상 모순된 표현을 들 수 있다. 가령 '색깔 없는 녹색'의 경우, '녹색'에 '파랑과 노랑의 중간색'이라는 색깔과 관련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것과 모순되는 '색깔 없는'이라는 수식어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들의 결합 관계가 자연스럽게 않다. 공기 제약을 위반한 경우 유의어 대체를 통해 공기 제약의 위반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색깔 없는 녹색'처럼 '녹색' 대신 유의어인 '초록'으로 대체하여도 같은 의미상 모순이 발생하여 공기 제약의 위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01

[22004-009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보기

- ㄱ. '차가운', '뜨거운'이나 '깨끗한', '더러운'은 모두 '물' 앞에 위치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단위로, 서로 계열 관계를 맺고 있다.
- ㄴ. '뜨거운 차가움'은 '뜨거운'과 '차가움'이 의미상 모순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문장 내 단어들의 결합 관계가 자연스럽게 않다.
- ㄷ. '적은 함유량'을 공기 제약을 위반하지 않은 표현으로 볼 때, '적은'을 '낮은'으로 바꾸면 공기 제약을 위반하게 된다.
- ㄹ. '시끄러운 고요'를 공기 제약을 위반한 표현으로 볼 때, '고요'를 '정적'으로 바꾸어도 공기 제약의 위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2

[22004-0098]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보기

- ㉠ 생물(生物):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 영양·운동·생장·증식을 하며, 동물·식물·미생물로 나뉜다. ≒ 생물체, 유생물.
- ㉡ 무생물(無生物): 생물이 아닌 물건.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은 돌, 물, 흙 따위를 이른다.
- ㉢ 동물(動物): 생물계의 갈래 가운데 하나.
- ㉣ 당나귀: 포유류 말과에 속한 동물의 하나. ≒ ㉢ 나귀.

① ㉢는 ㉣를 함의하지 않지만, ㉣는 ㉢를 함의한다.

② ㉠나 ㉢는 ㉡나 ㉣보다 항상 많은 수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

③ '㉠와 ㉡'와 달리, '㉠와 ㉢'나 '㉢와 ㉡'는 상하 관계를 맺고 있다.

④ '㉡와 ㉢'는 반의 관계를 맺고 있고, '㉡와 ㉣'는 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

⑤ ㉢는 ㉠와의 관계에서는 상위어가 되지만, ㉡와의 관계에서는 하위어가 된다.

[22004-0099]

03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학습 활동] 다음을 참고하여 ㉠~㉥에 제시된 고유 명사의 로마자 표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보자.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음과 자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ㅏ	ㅓ	ㅜ	ㅞ	ㅟ	ㅘ	ㅙ
a	o	u	ae	yeo	wa	wo

ㄱ	ㅋ	ㄷ	ㅌ	ㅍ	ㅎ	ㄴ	ㅁ	ㅇ	ㄹ
g, k	k	d, t	tt	p	h	n	m	ng	r, l

- (1)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 (2) 'ㄱ, ㄷ, ㅍ'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3)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 대관령[대:괘령] → Daegwallyeong
- ㉡ 팔당[팔팡] → Paldang
- ㉢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 묵호[무코] → Mukho
- ㉤ 월곶[월곶] → Wolgot

- ① ㉠에서 유음화는 그 변동의 결과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된다.
- ② ㉡에서 된소리되기는 그 변동의 결과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③ ㉢에서 'ㄴ' 첨가, 비음화는 그 변동의 결과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④ ㉣에서 거센소리되기는 그 변동의 결과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⑤ ㉤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 변동의 결과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된다.

[22004-0100]

04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그가 ㉠ 늦게 ㉡ 학교에 왔을 때 나는 ㉢ 이미 집에 ㉣ 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 곧바로 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 ① ㉠: 용언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결합된 형태가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② ㉡: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가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③ ㉢: 단일어인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④ ㉣: 용언 어간이 그대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⑤ ㉤: 합성어인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22004-0101]

05 <보기>의 ㉠~㉤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 휘노더니 이랑이 ㉢ 소리를 높히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라 ㉣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 밑 홍운을 헤치고 큰 실오리 같은 줄이 ㉤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 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그믐밤의 보는 숯불빛 같더라

- 《의유당관북유람일기》

[현대어 풀이] 홍색(紅色)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휘노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이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라.”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 밑 홍운(紅雲)을 헤치고 큰 실오리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奇異)하며, 기운이 진홍(眞紅) 같은 것이 차차 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그믐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 ① ㉠: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 적기 표기 방식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 현대 국어와 달리, 합용 병서에 의해 만들어진 ‘ㄴ’이 표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 ‘-를’이 결합된 것을 볼 때 현대 국어와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 연결 어미 ‘-거늘’을 활용하여 앞 절과 뒤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 ‘붉-’에 명사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어미 ‘-기’가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004-0064]

01 <보기>를 바탕으로, 제시된 단어들의 변이 형태가 실현되는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는 그 형태소가 놓이는 음성적 환경에 따라 실제 발음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먹다’에서 ‘먹-’은 음성적 환경에 따라 [떡] 또는 [명]으로 소리 난다. 이때 음운은 교체되었지만 하나의 형태소가 음성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떡]과 [명]은 형태소 ‘먹-’의 음성적인 변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음운이 음성적 환경에 따라 이렇게 변이 형태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 제시된 형태소 앞에 다른 말이 결합되는 경우나 휴지를 두고 다른 말이 이어지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먹-’의 변이 형태와 실현 조건

- | | | | |
|------------|---------|------------------|-----------|
| • 먹- → [명] | / | 비음 앞 | 예) 먹는, 먹물 |
| • 먹- → [떡] | / | 비음 외의 음운 앞 | 예) 먹고, 먹어 |
| (형태소) | (변이 형태) | (변이 형태가 나타나는 환경) | |

■ ‘흙’의 변이 형태와 실현 조건

- 흙 → [흙] / 자음 ‘ㄱ’ 앞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
- 흙 → [흑] / 단독, 또는 비음 외의 자음 앞, 또는 ‘ㄷ, ㅌ, ㄱ, ㅈ, ㅊ’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흙 → [홍] / 비음 앞, 또는 ‘ㄷ, ㅌ, ㄱ, ㅈ, ㅊ’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밥’의 변이 형태와 실현 조건

- 밥 → [밥] / 단독, 또는 비음 외의 자음 앞, 또는 모음 앞㉣
- 밥 → [밤] / 비음 앞㉤

① ㉠

② ㉡

③ ㉢

④ ㉣

⑤ ㉤

[21004-0065]

02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한 단어와 유의 관계를 이루는 단어는 여러 개일 수 있는데, 문맥에 따라 각기 다른 단어가 유의 관계를 이루기도 합니다. 다음 표에서 문맥에 따라 고유어와 유의 관계를 이루는 한자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를 확인해 볼까요?

고유어	예문	한자어
멈추다	뜻밖의 상황에 열차가 <u>멈추었다</u> .	㉠
	우리는 기계의 고장으로 일을 <u>멈추었다</u> .	㉡
	그는 놀라운 광경에 시선을 <u>멈추었다</u> .	㉢
자라다	그는 이제 어른스럽게 마음도 <u>자랐다</u> .	㉣
	민주 의식은 민주적 생활 습관에서 <u>자란다</u> .	㉤

- ① ㉠: 정지(停止)하다
- ② ㉡: 중단(中斷)하다
- ③ ㉢: 종료(終了)하다
- ④ ㉣: 성숙(成熟)하다
- ⑤ ㉤: 성장(成長)하다

[03~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이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문장을 절이라고 하는데, 절이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은 홑문장이고, 절이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은 겹문장이다. 겹문장에는 절과 절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이어진문장과, 절이 다른 절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안은문장이 있다. 안은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 있다.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여러 층위를 이루며 연결되어 하나의 겹문장이 되기도 한다.

그중에서 명사절은 명사의 기능을 하는 절로, 주로 명사형 어미 ‘-(으)ㄴ’이나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다. 이때 서술어가 되는 용언에 따라 취하는 명사형 어미가 다르다. 명사절은 주로 격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으)ㄴ’과 ‘-기’는 명사형 어미와 형태는 같지만 용언의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파생 접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파생 접사 ‘-(으)ㄴ’이나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명사절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체언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등 다른 문장 성분을 취하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주어나 목적어 등의 문장 성분을 가질 수 있으면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

[21004-0066]

03 뒷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민재는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했음을 확인한 후에 오랜만에 달콤한 ㉡잠을 푹 잤다.
- 새 운동화를 신고 빨리 ㉢달리기가 불편해서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가 잠시 쉬었다.
- 나무늘보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먹이를 먹는 것을 사진으로 ㉥찍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 그 음식은 혼자서 다 ㉦먹기에 양이 너무 많다.

- ① ㉠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문장에서 ‘해결했-’에 명사형 어미 ‘-(으)ㄴ’을 붙인 명사절로, 격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 ② ㉡과 ㉢은 각각 ‘자다’의 어근에 명사 파생 접사 ‘-ㄴ’을, ‘먹다’의 어근에 명사 파생 접사 ‘-이’를 붙여 만든 체언으로, 각각 격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 ③ ㉣은 ‘새 운동화를 신고 빨리 달리다.’라는 문장에서 ‘달리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기’를 붙인 명사절로, 격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 ④ ㉤과 ㉥은 각각 ‘달리다’, ‘찍다’의 어근에 명사 파생 접사 ‘-기’를 붙여 만든 체언으로, ㉤은 격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은 보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 ⑤ ㉦은 ‘혼자서 (음식을) 다 먹다.’라는 문장에서 ‘먹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기’를 붙인 명사절로,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

[21004-0067]

04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의 구성에 대해 파악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㉑ 농부들은 [토양을 적셔 줄] 단비가 내리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㉒ 그 과학자는 [파괴된] 해양 생태계의 복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다.

- ① ㉑와 ㉒가 생략되어도 ㉑와 ㉒는 문장으로 성립할 수 있다.
- ② ㉑에서 생략된 주어와 달리 ㉒에서 생략된 주어는 ㉒가 꾸며 주는 말에 해당한다.
- ③ ㉑는 용언 ‘내리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뒤 조사가 연결되어 문장에서 명사 절로 기능하고 있다.
- ④ ㉑와 ㉒는 용언 ‘위하다’의 어간에 종속적 연결 어미 ‘-여’가 붙어서 이어지고 있다.
- ⑤ ㉑는 ‘그 과학자는’을 각각의 주어로 갖는 절인 ㉑와 ㉒를 포함한 겹문장이다.

[21004-0068]

05 <보기>의 ㉑을 확인할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서 조사 ‘이’는 다양한 격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주격 조사로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이’로 나타났다. 이때 우리말로 된 체언의 경우 끝 자음과 이어 적기를 했다. ‘ㅣ’ 모음 또는 반모음 ‘j’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반모음 ‘j’로, ‘ㅣ’ 모음 또는 반모음 ‘j’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영 형태(Ø)로 나타났고, 모음으로 끝난 체언이 한자로 표기되었을 때는 한자 뒤에 ‘ㅣ’를 붙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보격 조사로도 사용되었는데, 나타나는 환경은 주격 조사와 유사했다. 또한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말 뒤에 붙어서 반모음 ‘j’의 형태로 ㉑관형격 조사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 ① 입시울 가빅야쁜 소리 드외느니라.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느니라.)
- ② 드리 즘든 마르매 비취요미 곧흐니라.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침과 같으니라.)
- ③ 막춤내 제 뜨들 시러 퍼디 (마침내 저의 뜻을 능히 퍼지)
- ④ 우리 시조(始祖) ㉑ 경흥(慶興)에 사르샤 (우리 시조께서 경흥에 사시어)
- ⑤ 어린 빅성(百姓)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21004-0071]

03 다음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색채 형용사 ‘하얗다’와 ‘까맣다’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어휘의 의미에 대해 탐구해 보자.

‘하얗다’	‘까맣다’
「1」 깨끗한 눈이나 밀가루와 같이 밝고 선명하게 희다.	「1」 불빛이 전혀 없는 밤하늘과 같이 밝고 질게 검다. ‘가맣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2」 춤거나 겁에 질리거나 하여 얼굴이 핏기가 없이 희다.	「2」 거리나 시간이 아득하게 멀다. ‘가맣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3」 ((주로 ‘하얗게’ 꼴로 쓰여)) 굉장히 많다.	「3」 ((주로 ‘까맣게’ 꼴로 쓰여)) 기억이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가맣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4」 ((주로 ‘하얗게’ 꼴로 쓰여)) 사뭇 뜬눈으로 지내다.	「4」 ((주로 ‘까맣게’ 꼴로 쓰여))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가맣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5」 ((주로 ‘까맣게’ 꼴로 쓰여)) 놀라거나 아파서 살색이 질어지다. ‘가맣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 ① ‘하얗다」1」과 ‘까맣다」1」을 보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과 관련된 색을 이용하여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 ② ‘하얗다」1」과 ‘까맣다」1」은 서로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하얗다」2」와 ‘까맣다」2」는 서로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하얗다」2」와 ‘까맣다」5」는 감정 또는 신체 상태와 관련되어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 ④ ‘뒷산에 사람들이 하얗게 물려들었다.’에서 ‘하얗게’의 의미에 해당하는 ‘하얗다」3」은 ‘까맣다」4」와 바꾸어 써도 의미의 차이가 별로 없다.
- ⑤ ‘하얗다」4」와 ‘까맣다」3」은 모두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얼굴빛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1004-0072]

0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제시된 보조 용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학생의 질문]

보조 용언을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답변]

한 문장에서 두 개 이상의 용언이 연속되어 나타날 때, 본용언이 연속되기도 하지만 본용언 뒤에 오는 용언이 보조 용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혼자서 쓰이는 본용언과 달리, 보조 용언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을 말합니다. 보조 용언도 활용을 하는데, 대체로 활용 양상에 따라 보조 용언의 품사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조 용언이 동사처럼 활용하면 보조 동사, 형용사처럼 활용하면 보조 형용사가 됩니다. ‘아니하다’, ‘못하다’ 등 일부 용언은 동일한 형태가 각기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구분되어 쓰이는데, 이때는 보조 용언이 본용언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나 기능으로 쓰이는지, 활용 양상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품사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 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동사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동사에는 진행형 ‘-고 있다’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보기 2]

- (1) ㄱ. 비행기가 참 빨리 가기도 한다.
 ㄴ. 꽃이 참 예쁘기도 하다. / *한다.
- (2) ㄱ. 나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ㄴ. 그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 *않는다.
- (3) 저 상점은 밤마다 등불을 환하게 밝혀 둔다.
- (4) ㄱ. 나도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싶다.
 ㄴ. 지금보다 더 예뻐지고 싶다.

*는 비문법적 표현임.

- ① (1)-ㄱ에 사용된 보조 용언의 어간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면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는 점에서 ‘하다’를 보조 동사라고 할 수 있다.
- ② (1)-ㄴ과 (2)-ㄴ에 사용된 보조 용언의 어간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모두 보조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 ③ (1)-ㄱ, ㄴ과 (2)-ㄱ, ㄴ에 사용된 보조 용언은 모두 앞에 오는 본용언의 품사가 동사이면 보조 동사, 형용사이면 보조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2)-ㄱ, (3)은 모두 보조 용언의 어간에 ‘-고 있다’를 사용하여 진행형을 만들어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밑줄 친 말이 모두 보조 동사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⑤ (4)-ㄱ, (4)-ㄴ은 보조 용언의 앞에 사용된 본용언이 각각 동사, 형용사라는 점으로 미루어, (4)-ㄱ에는 보조 동사, (4)-ㄴ에는 보조 형용사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004-0073]

05 <보기 1>의 문장들을 <보기 2>에 따라 분류하는 탐구 활동을 하였다. ㉠~㉤과 ㉡~㉨를 짝지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 ㉠ 철수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 ㉡ 일출봉에 해가 뜨거든 나를 불러 주어라.
- ㉢ 그분은 새벽 4시까지 일을 하느라고 늦잠을 잤다.
- ㉣ 어머니께서 음식을 다 차려 놓으시자 애들이 일어났다.
- ㉤ 이렇게 눈이 심하게 오는데 차를 몰고 나가도 될까?

「보기 2」

이어진문장은 문장이 이어진 방식에 따라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으로 나뉜다.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 주로 나열, 대조, 선택의 제한된 의미를 가지는데 반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에서 앞의 절은 뒤의 절에 대해 ㉠동시 사건 표현, ㉡선행 사건 표현, ㉢사건의 전환, ㉣이유·원인, ㉤조건·가정, ㉥양보·인정, ㉦목적·의도, ㉧배경·상황 설명 등의 더욱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21004-0074]

06 <보기>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표기 방식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종성으로는 초성을 다시 쓴다. 이는 종성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 ‘ㅇ’을 순음(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
- 초성을 합쳐 쓰려면 병서한다. 종성도 마찬가지이다.
 - 각자 병서는 같은 글자를 합해 쓰는 것이다. ㉢
 - 합용 병서는 서로 다른 글자를 합해 쓰는 것이다. ㉣
- 그러나 ‘ㄱ, ㅇ, ㄷ, ㄴ, ㅂ, ㅍ, ㅅ, ㄹ’의 여덟 글자로 종성에 쓰는 데 충분하다. 종성으로 쓰인 ‘ㅅ, ㅅ, ㅅ’ 등은 ‘ㅅ’으로 쓸 수 있다. ㉤

-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곶㉡뻥 ㉢쓰라. 乃냉終중 ㄱ 소리도 한가지라.
(첫소리를 어울러 쓸 것이면 나란히 쓰라. 나중 소리도 한가지라.)
- 새로 스물여덟 字종틀 ㉣뿔 ㄱ노니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 如빛꽃爲梨花 ㉣열의갓爲狐皮 而ㅅ字可以通用 故只用ㅅ字.
여빛꽃위리화 열의갓위호피 이ㅅ자가이통용 고지용ㅅ자
(‘빛꽃(배꽃)’이나 ‘열의갓(여우의 가죽)’에서처럼 ㅅ 자로 두루 쓸 수 있어서 오직 ㅅ 자를 쓰는 것과 같다.)

- ① ㉠: ㉣이 초성 표기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글자이다.
- ② ㉡: ㉡이 초성 표기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글자이다.
- ③ ㉢: ㉢이 초성 표기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글자이다.
- ④ ㉣: ㉣에 의하면 초성으로 만든 글자인 ‘ㅇ’을 종성에서 사용한 것이다.
- ⑤ ㉤: ㉣과 ㉤에 의하면 ‘열’, ‘열’, ‘열’으로 모두 표기할 수 있는 글자이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나 문장은 단순한 단어의 집합이 아니고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계층적’이라 함은 다양한 단위의 구성 요소들끼리 결합하여 상위 구조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층적 구조를 가정하게 되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구나 문장 중 일부를 설명할 수도 있다.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구인 ‘착한 친구 동생’을 예로 들어 보자. 이 구는 ‘착한’, ‘친구’, ‘동생’이라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의 중의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제시된 구가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구에는 두 가지의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착한’이 ‘친구’를 수식하고 있다고 보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두 구성 요소가 결합한 ‘착한 친구’라는 하위 구조에, 또 다른 구성 요소 ‘동생’이 결합하여 ‘착한 친구 동생’이라는 상위 구조를 형성했다고 본다. 이 경우 [착한 + 친구] + [동생]으로 분석되어 ‘착한 친구, 그 친구의 동생’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착한’이 ‘친구 동생’을 수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두 구성 요소가 결합한 ‘친구 동생’이라는 하위 구조에, 또 다른 구성 요소 ‘착한’이 결합하여 ‘착한 친구 동생’이라는 상위 구조를 형성했다고 본다. 이 경우 [착한] + [친구 + 동생]으로 분석되어 ‘친구의, 착한 동생’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착한 친구		동생
착한	친구	

<표 1>

착한	친구 동생	
	친구	동생

<표 2>

계층적 구조를 가정하는 방법을 통해 중의적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나는 오빠와 언니를 불렀다.’라는 문장을 가정해 보자. 이 문장에는 두 가지의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두 구성 요소가 결합한 ‘나는 오빠와’라는 하위 구조에, ‘언니를’과 ‘불렀다’가 결합한 또 다른 구성 요소가 결합하여 상위 구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문장은 [나는 + 오빠와] + [[언니를] + 불렀다.]로 분석되어 ‘나는 오빠와 함께, 언니를 불렀다.’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두 구성 요소가 결합한 ‘오빠와 언니를’이라는 하위 구조에, 또 다른 구성 요소 ‘불렀다’가 결합한 후 다시 ‘나는’이 결합하여 상위 구조를 형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문장은 [나는] + [[오빠와 + 언니를] + 불렀다.]로 분석되어 ‘내가 오빠와 언니, 둘을 불렀다.’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21004-0075]

01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착한 친구 동생’은 ‘착한’이 수식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리 해석 될 수 있다.
- ② ‘착한 친구 동생’을 계층적 구조로 보면 ‘[착한+ 친구]+[동생]’이나 ‘[착한]+[친구+ 동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③ ‘나는 오빠와 언니를 불렀다.’를 ‘[나는]+[[오빠와+ 언니를]+ 불렀다.]’로 분석하면 ‘나’가 부른 사람은 두 명이다.
- ④ ‘나는 오빠와 언니를 불렀다.’를 ‘[나는+ 오빠와]+[[언니를]+ 불렀다.]’로 분석하면 ‘언니’를 부른 사람은 ‘나’와 ‘오빠’이다.
- ⑤ ‘착한 친구 동생’이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때, 다른 말을 수식하는 ‘착한’은 계층적 구조의 구성 요소에서 제외된다.

[21004-0076]

02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계층적 구조를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저 학생 사진’은 ‘저’가 수식하는 말이 ㉠‘학생’인 경우와 ㉡‘학생 사진’인 경우로 해석되는 구조로, 전자와 후자의 계층적 구조는 다르게 표현된다. ㉠, ㉡는 뒷글의 논지에 따라 <표 1>, <표 2>처럼 표로 나타낼 수도 있다.

【보기 2】

a.	b.	c.	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colspan="3">저 학생 사진</td></tr><tr><td>저</td><td>학생</td><td>사진</td></tr></table>	저 학생 사진			저	학생	사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rowspan="2">저</td><td colspan="2">학생 사진</td></tr><tr><td>학생</td><td>사진</td></tr></table>	저	학생 사진		학생	사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colspan="2">저 학생</td><td rowspan="2">사진</td></tr><tr><td>저</td><td>학생</td></tr></table>	저 학생		사진	저	학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저</td></tr><tr><td>학생</td></tr><tr><td>사진</td></tr></table>	저	학생	사진
저 학생 사진																						
저	학생	사진																				
저	학생 사진																					
	학생	사진																				
저 학생		사진																				
저	학생																					
저																						
학생																						
사진																						

	㉠	㉡
①	b	a
②	b	d
③	c	a
④	c	b
⑤	d	c

[21004-0077]

03 <보기>의 [과제]에 대해 학생이 [답안]을 작성하였다. 적절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과제] 품사와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다섯’과 ‘그’의 특성에 대해 탐구해 보자.

(1) 학생 ㉠다섯이 나에게 물었다.
 ㉡다섯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2) ㉢그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나에게 온 ㉣그에게 물었다.

[답안]

- ㉠과 달리 ㉡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들’을 결합할 수 있다. ㉠ a
- ㉢과 달리 ㉣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성분에 해당한다. ㉢ b
- ㉠, ㉡은 모두 조사나 어미의 결합 없이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 c
- ㉠, ㉡의 ‘다섯’, ㉢, ㉣의 ‘그’는 모두 품사가 통용되는 예에 해당한다. ㉤ d

① a, d

② b, c

③ b, d

④ a, b, c

⑤ a, c, d

[21004-0078]

04 <보기>를 바탕으로 제시된 단어의 준말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준말

제38항 ‘ㅏ, ㅑ, ㅓ, ㅕ’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ㅏ, ㅑ, ㅓ, ㅕ’로 끝난 어간 뒤에 ‘-이어’가 결합하여 모음이 줄어들 때는 준 대로 적는다. 이 때에는 ‘ㅏ, ㅑ, ㅓ, ㅕ’와 ‘-이어’의 ‘이’가 하나의 음절로 줄어 ‘ㅐ, ㅑ, ㅓ, ㅕ’가 될 수도 있고, ‘-이어’가 하나의 음절로 줄어 ‘-여’가 될 수도 있다.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이미 한 단어로 굳어져 원형을 밝혀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잖’, ‘찮’으로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 않-’과 ‘-치 않-’이 줄어든 말이 한 단어가 아닌 경우에도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잖’, ‘찮’으로 적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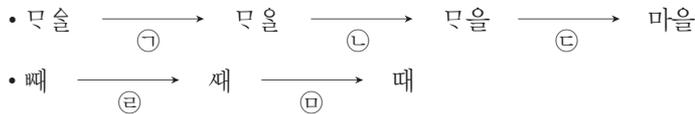
- ① 트이어: ‘ㅓ’와 ‘-이어’가 줄어든 ‘띄여’는 제38항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 ② 싸이어: ‘-이어’가 ‘-여’로 줄어든 ‘싸여’는 제38항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 ③ 누이어: ‘ㅓ’와 ‘-이어’의 ‘이’가 줄어든 ‘뉘여’는 제38항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 ④ 그렇지 않아: ‘-지’와 ‘-않-’이 줄어든 ‘그렇잖아’는 제39항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 ⑤ 편하지 않아: ‘-하지’ 뒤에 ‘-않-’이 줄어든 ‘편찮아’는 제39항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21004-0079]

05 <보기>의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과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천에 대해 탐구하시오.



- ① ㉠을 근거로 할 때, 반치음 ‘ㅏ’이 소실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② ㉡을 근거로 할 때, 둘째 음절에 쓰인 ‘ㅑ’가 ‘ㅓ’로 변화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③ ㉢을 근거로 할 때, 첫째 음절에 쓰인 ‘ㅓ’가 ‘ㅏ’로 변화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④ ㉣을 근거로 할 때, 어두 자음군 ‘ㅑ’에서 ‘ㅓ’가 탈락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⑤ ㉤을 근거로 할 때, 어두의 ‘ㅓ’가 반모음 ‘j’ 앞에서 탈락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미 성분 분석이란 단어의 의미를 몇 가지 구성 성분으로 쪼갤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구성 성분의 특징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고 없을 때에는 ‘-’ 표시를 한다. 문맥에 따라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면 ‘±’ 표시를 한다. 가령 ‘소년, 소녀, 총각, 처녀’를 분석해 보자. ‘소년’이라는 단어는 [+인간], [+남성], [-성년], [-기혼]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녀’를 분석하면 [+인간], [-남성], [-성년], [-기혼]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총각’은 [+인간], [+남성], [+성년], [-기혼]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처녀’는 [+인간], [-남성], [+성년], [-기혼]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런데 위 단어들에 [+포유류], [+동물], [+구체물] 등의 의미 성분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의미 성분은 [+인간]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잉여적인 것이다.

의미 성분 분석은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등 어휘의 의미 관계 분석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우선 유의어는 공통적인 의미 성분을 가질 때 성립한다. ‘윗몸’과 ‘상반신’은 공통적으로 [+몸], [+위]라는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반의어는 공통적인 의미 성분을 지니면서 여러 의미 성분 중 하나만 반대될 때 성립한다. ‘소년’과 ‘소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반의어는 의미 성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틈’은 ‘취미 생활을 할 틈이 없다.’에서와 같이 [+시간]의 의미 성분을 가지기도 하지만 ‘벽에 틈이 벌어졌다.’에서와 같이 [-시간]의 의미 성분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겨울’은 ‘취미 생활을 할 겨를이 없다.’와 같이 [+시간]의 의미 성분만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 성분의 차이로 각각의 반의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서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다’의 경우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다.’, ‘체면 따위가 바로 유지되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데, 각각의 쓰임에서 의미 성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의어는 각기 다르다. 마지막으로 어휘의 상하 관계란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이다. 이때 포함하는 단어를 상위어, 포함되는 단어를 하위어라고 한다. 가령 ‘생물’에는 ‘동물’과 ‘식물’이 있고 ‘동물’에는 ‘포유류’, ‘조류’ 등이 있고 ‘조류’에는 ‘비둘기’, ‘참새’, ‘제비’ 등이 있는데, 이때 ‘비둘기, 참새, 제비’의 상위어는 ‘조류’가 되고 ‘조류, 포유류’의 상위어는 ‘동물’이 되며 ‘동물, 식물’의 상위어는 ‘생물’이 된다. 이에 따라 하위어는 상위어보다 의미 성분의 수가 더 많게 된다. 또한 하위어의 지시 대상은 당연히 상위어의 지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비둘기’는 당연히 ‘조류’이며 ‘동물’이고 ‘생물’이므로, 상위어가 하위어를 포함한다. 그러나 상위어가 당연히 하위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리켜 일방 함의 관계라고 하고, ‘비둘기’는 ‘조류’를 함의한다고 한다.

[21004-0080]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다’의 반의어로는 ‘(기차가) 가다’, ‘(체면이) 깎이다’가 가능하겠군.
- ② 어떤 단어가 [+ 포유류]의 의미 성분을 가질 때 [+ 동물]은 잉여 성분이 되겠군.
- ③ ‘닭’이 상위어인지 아닌지는 ‘닭’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아서는 판단하기 어렵겠군.
- ④ ‘틈’과 ‘겨를’은 공통적으로 [±시간]의 의미 성분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의어이겠군.
- ⑤ ‘총각’과 ‘소녀’는 여러 의미 성분 중 하나만 반대되지 않으므로 반의어로 볼 수 없겠군.

[21004-0081]

0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제시된 ‘어휘’에 대한 ‘탐구 결과’로 적절한 것은?

어휘	탐구 결과
㉠ 악기 ㉡ 피아노 ㉢ 연주하다	→ • ㉡은 ㉠의 한 종류이므로 ㉠은 ㉡의 하위어라고 할 수 있다. ① • ㉢의 행위에는 ㉠이 전제되므로 ㉢은 ㉠의 상위어라고 할 수 있다. ②
㉣ 개 ㉤ 꼬리	→ • ㉤은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 ㉣의 상위어라고 할 수 있다. ③
㉥ 생물 ㉦ 참새	→ • ㉥은 ㉦의 상위어이므로 ㉥은 ㉦보다 의미 성분의 수가 더 많다. ④
㉧ 축구 ㉨ 스포츠	→ • ㉨은 ㉧을 포함하므로 ㉧이 ㉨을 함의하는 일방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⑤

[21004-0082]

0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부사어는 대개 문장에서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 이상이 없는 문장 성분이다. 하지만 문장에 쓰인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아 이에게 용돈을 주었다.’는 ㉠세 자리 서술어가 쓰여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이고, ‘눈 이 비로 변하였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쓰여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①	형은 가방에 책을 넣었다.	언니는 병마와 힘겹게 싸웠다.
②	형은 가방에 책을 넣었다.	그는 고아를 양자로 삼았다.
③	그는 고아를 양자로 삼았다.	형은 가방에 책을 넣었다.
④	오빠는 언니와 정말 달랐다.	언니는 병마와 힘겹게 싸웠다.
⑤	오빠는 언니와 정말 달랐다.	그는 고아를 양자로 삼았다.

[21004-0083]

0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겹받침의 발음 방법]

- 앞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 ‘ㅞ’의 경우 ‘뱃-’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에는 [비]로 발음하고, ‘뽕-’이 포함된 복합어 중 ‘뽕죽하다’, ‘뽕적하다’ 등에서는 ‘리’를 탈락시켜 [비]로 발음한다.
- ㉠뒤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 겹받침 ‘ㄱ’, ‘ㄴ’, ‘ㄷ’, ‘ㄹ’, ‘ㅂ’, ‘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ㅂ], [ㅅ]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ㄱ’은 [ㄱ], ‘ㄴ’은 [ㄴ], ‘ㄷ’, ‘ㄹ’, ‘ㅂ’은 [ㄷ], ‘ㅅ’은 [ㅅ]으로 뒤의 자음을 탈락시켜 발음한다.
- 뒤의 자음과 그 뒤의 ‘ㅎ’이 축약되는 경우 → ‘ㅞ’, ‘ㅟ’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겹받침에 있는 뒤의 자음과 ‘ㅎ’이 축약되어 각각 [표, 초]으로 발음한다.

- ① 없다, 활다 ② 없다, 뱃다 ③ 활다, 뱃히다
 ④ 앉히다, 뱃히다 ⑤ 앉히다, 뱃다

[21004-0084]

05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과제] 다음 제시된 단어를 문법적인 기준을 세워 분류하시오.

산나물 녹이다 곤잘 덧신 귀엽다 이리저리

학생 1: 단어를 ㉠(으)로 분류해 보면 어떻게? 그러면 ‘산나물, 곤잘, 덧신, 이리저리’ / ‘녹이다, 귀엽다’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2: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산나물, 덧신’ / ‘녹이다, 귀엽다’ / ‘곤잘, 이리저리’로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학생 1: 그렇지, ㉡(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겠다.

	㉠	㉡
①	‘체언’ / ‘용언’	‘명사’ / ‘동사’ / ‘관형사’
②	‘체언’ / ‘용언’	‘명사’ / ‘형용사’ / ‘부사’
③	‘불변어’ / ‘가변어’	‘명사’ / ‘동사’ / ‘관형사’
④	‘불변어’ / ‘가변어’	‘체언’ / ‘용언’ / ‘수식언’
⑤	‘명사’ / ‘형용사’	‘체언’ / ‘용언’ / ‘수식언’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탐구 활동]

‘juice’, ‘vision’은 ‘주스’, ‘비전’이 외국어 화자의 발음과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주스’, ‘비전’이라고 적도록 한 것일까? 자료를 찾아서 그 이유를 탐구해 보아야겠어.

[자료]

외래어 표기법에서 ‘주스’, ‘비전’으로 적지 않고 ‘주스’, ‘비전’으로 적도록 한 것은 ‘ㅈ, ㅉ, ㅊ’ 뒤의 j-계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중시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자, 저, 조, 주, 제, 재’는 [자], [저], [조], [주], [제], [재]로 발음되며, ‘짜, 쨌, 쪼, 쪼, 쪼, 쪼’와 ‘차, 처, 초, 추, 체, 채’의 모습도 모두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주, 저’와 ‘주, 저’ 등을 구분해서 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주스’, ‘비전’ 같은 어형을 허용하지 않고 국어 화자의 실제 발음에 따라 ‘주스’, ‘비전’ 등으로 적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ㅈ, ㅉ, ㅊ’ 다음에 j-계 이중 모음을 적는 경우가 있다. ‘가져’, ‘다쳐’ 등이다. 이때 ‘가져’, ‘다쳐’로 적는 이유는 이들이 각각 ‘가지-+-어’, ‘다치-+-어’가 줄어서 된 형태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들 역시 [가져], [다쳐]로 발음된다. 마찬가지로, ‘간하다’의 활용형인 ‘간혀’의 끝음절도 [쳐]로 발음된다.

15세기 국어에는 ‘ㅈ, ㅉ, ㅊ’ 뒤에 j-계 이중 모음이 이어진 음절이 존재했다. 문헌에서 ‘저(재귀 대명사)’와 ‘저(젓가락)’, ‘초(식초)’와 ‘초(양초)’ 등은 항상 구별되어 표기되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자, 저, 조, 주, 차, 처, 초’ 등과 ‘자, 저, 조, 주, 차, 처, 초’ 등이 발음상으로도 구별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이처럼 15세기에 있었던 ‘자’, ‘차’ 등이 후대에 ‘자’, ‘차’ 등으로 바뀌게 된 것은 ‘ㅈ, ㅉ, ㅊ’의 음가가 치조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게 된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근대에 널리 일어난 구개음화를 거치면서 ‘ㅈ’ 등의 음가가 치조음 [ts, dz] 등에서 경구개음 [tʃ, dʒ] 등으로 바뀌어 현대 국어에 이르렀다. 이는 ‘자, 저, 조, 주’ 등의 발음이 ‘자, 저, 조, 주’ 등으로 바뀌는 원인을 제공했다.

[21004-0085]

0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ㅈ, ㅉ, ㅊ’의 조음 위치는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서로 다르겠군.
- ② 현대 국어에 ‘ㅈ, ㅉ, ㅊ’ 뒤에 j-계 이중 모음이 이어진 음절은 존재하지 않겠군.
- ③ 15세기 국어에서는 ‘초’의 ‘ㅈ’과 ‘초’의 ‘ㅊ’이 둘 다 음가가 경구개음에 해당했겠군.
- ④ 15세기 국어에서는 ‘젓가락’을 의미하는 단어를 ‘저’라고 표기하고, [저]라고 발음했겠군.
- ⑤ 외래어 표기법에서 ‘juice’를 ‘주스’로 적도록 한 것은 국어 화자의 발음을 중시한 것이겠군.

[21004-0086]

02 위 [탐구 활동]과 [자료]를 참고할 때, 올바른 표기와 올바른 발음이 연결된 것만을 골라 묶은 것은?

ㄱ. 나는 일기장을 펼쳐[펼쳐] 그 부분을 찾았다.
 ㄴ. 음식이 너무 기름져서[기름져서] 소화가 잘 안된다.
 ㄷ.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무쳐] 있었던 유물이 발견되었다.
 ㄹ. 고장이 났는지 텔레비전*[텔레비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 television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004-0087]

03 다음은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는 비문법적 표현)	탐구 내용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은/*는] 월요일이다. • 어제[*은/는] 공휴일이었다. 	조사가 붙을 말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에/*에게] 물을 주다. • 돼지[*에/에게] 먹이를 주다. 	조사가 붙을 말이 유정 명사인지는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께서] 신문을 본다. • 아버지[*가/께서] 신문을 보신다. 	조사가 붙을 말이 높임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소풍을 가요.”[라고/*고] 떼를 쓴다. • 아이들이 소풍을 가자[*라고/고] 떼를 쓴다. 	조사가 붙을 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 말은 친구[로서/*로써] 할 말이 아니다. • 말[*로서/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조사가 붙을 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21004-0088]

0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자료를 참고하여 '걷다¹'과 '걷다²'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걷다¹ [걷:따]「동사」

활용 정보: 걸어[거리], 걸으니[거르니], 걷는[건:는]

[1] 다리를 움직여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다.

¶ 허둥지둥 걷다.

[2]【…을】

「1」 어떤 곳을 다리를 번갈아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

¶ 그는 종로 거리를 걷는다.

「2」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다.

¶ 파멸의 길을 걷다.

「3」 전문직에 종사하다.

¶ 의사의 길을 걷다.

걷다² [걸따]「동사」

활용 정보: 걸어[거더], 걸으니[거드니], 걷는[건는]

【…을】

「1」 늘어진 것을 말아 올리거나 열어 젖히다.

¶ 커튼을 걷다.

「2」 널거나 깎 것을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한곳에 두다.

¶ 빨래를 걷다.

「3」 '거두다'의 준말.

¶ 비가 오는 바람에 들일을 걷고 돌아왔다.

- ① '걷다¹'과 '걷다²'는 둘 다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걷다¹'의 [1]을 활용한 관용 표현으로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를 제시할 수 있다.
- ③ '걷다²'의 「3」 용례 문장은 '비가 오는 바람에 들일을 거두고 돌아왔다.'로 바꿔 쓸 수 있다.
- ④ 어미 '-어라'가 결합한 활용형은 '걷다¹'의 경우에는 '걸어라'이고, '걷다²'의 경우에는 '걸어라'이다.
- ⑤ 어미 '-는다'가 결합한 활용형을 발음할 때 '걷다¹'의 경우에는 첫음절을 장음으로 발음하고, '걷다²'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004-0089]

0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발화를 통해 전달되는 것에는 ‘말한 것’과 ‘함축된 것’이 있다. “길동이 어디 있어?”라는 갑의 질문에 을이 “그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네.”라고 대답했다면, 을이 ‘말한 것’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길동이 그 사무실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발화에서 ‘말한 것’ 이상으로 생겨나는 이러한 의미들을 ‘대화 함축’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화 함축은 담화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발화나 맥락과 상반되면 취소될 수 있다. 가령, 앞의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그런데 그 사무실은 불을 항상 켜 두더라.”라고 덧붙인다면 길동이 그 사무실에 있으리라는 함축은 쉽게 취소된다.

「보기 2」

윤미: 연경아, 승아 못 봤어?
 연경: 글썄, ㉠노란 자전거가 도서관 앞에 있던데.
 윤미: 도서관에서 숙제하나 보네. 연경이 너는 국어 숙제, 수학 숙제 두 개 다 했어?
 연경: ㉡국어 숙제는 했어. 그거 하려고 ㉢백만 년 만에 시집을 다 샀잖아.
 윤미: 나도 얼른 해야겠다. 도서관 가서 승아랑 같이 국어 숙제부터 해야지.
 연경: 그럼 승아한테 전화 한번 해 보고 가. ㉣승아 요즘은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닐 때도 많아.
 윤미: 음, 그러면 그 노란 자전거가 승아 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럼 국어 숙제는 나중에 해야지.
 연경아, 지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연경: 어찌지? ㉤나 내일 시험 봐.

- ① ㉠: ‘승아’가 도서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 ② ㉡: 수학 숙제는 아직 안 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 ③ ㉢: 자신이 아주 오랜만에 시집을 샀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 ④ ㉣: ‘승아’는 국어 숙제를 이미 다 했을 것이라는 함축을 취소한다.
- ⑤ ㉤: 지금 영화를 보러 가지는 ‘윤미’의 제안에 대한 거절을 함축한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은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 국어에서의 객체 높임은 주로 ‘모시다, 드리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된다. 그런데 15세기 국어에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식은 현대 국어의 방식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15세기 국어에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하였다.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는 ‘-습-’인데 어간의 끝소리와 어미의 종류에 따라 ‘-습-, -줍-, -슬-, -술-, -즐-’으로도 실현되었다. ‘-습-, -습-, -줍-’은 모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것인데 어간의 끝소리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었다. ‘-습-’은 어간의 끝소리 ‘ㄱ, ㅂ, ㅅ, ㅎ’ 뒤에서 사용되었다. ‘-줍-’은 어간의 끝소리가 ‘ㅈ, ㅊ, ㄷ, ㅌ’일 때 사용되었고, ‘-슬-’은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거나 유성 자음 ‘ㄴ, ㄹ’일 때 사용되었다.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습-, -습-, -줍-’이 각각 ‘-슬-, -슬-, -즐-’으로 실현되었다.

(가) 내 쫘 勝鬘이 聰明하니 부터웃 보스븐면 당다이 得道를 썰리 흐리니
 [현대어 풀이] 내 딸 승만이 총명하니 부처를 뵈면 분명히 득도를 빨리 하리니

(나) 내 아래브터 부텃기 이런 마를 돋즈븐며
 [현대어 풀이] 내가 예전부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었으며

(다) 無量壽佛 보스븐 사름 님
 [현대어 풀이] 무량수불을 뵈 사람은

(가)에서는 ‘보스븐면’에는 용언의 어간 ‘보-’와 연결 어미 ‘-으면’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 말의 화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터’가 자기 딸 ‘승만’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터’를 높인 것이다. 그리고 (나)에서는 화자인 ‘나’가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터’가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돋즈븐며’에 ‘-줍-’이 나타났다.

객체 높임법은 관형사형에서도 실현되었는데 (다)에서 관형사형 ‘보스븐’은 바로 뒤의 명사인 ‘사름’보다 ‘무량수불’이 높기 때문에 ‘-슬-’을 사용한 것이다.

[21004-0090]

01 위 자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5세기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된다.
- ②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인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 ③ 15세기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은 결합하는 어간의 끝소리가 달라지면 ‘-습-’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 ④ (가)의 ‘보스 븐면’과 (나)의 ‘듣즈 븐며’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 있다.
- ⑤ (다)의 ‘보스 븐’에는 피수식어인 ‘사름’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 있다.

[21004-0091]

02 15세기 국어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단어의 형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국어	현대어 풀이
①	듣줍고(듣-+-줍-+-고)	듣고
②	츠습고(츠-+-습-+-고)	차고
③	얻즈바(얻-+-줄-+-아)	얻어
④	돕스 븐니(돕-+-습-+-으니)	도우니
⑤	막습거늘(막-+-습-+-거늘)	막거늘

[21004-0092]

03 <보기>는 국어의 모음 변동에 대해 학습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의 설명]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뛰-+-어 → [뛰어/뛰여]’, ‘맛집이-+-오 → [맛찌비오/맛찌비요]’는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가 활용할 때 반모음 첨가가 나타나는 예입니다. 이것은 ‘ㄱ’과 ‘ㄷ’ 뒤에 오는 어미 ‘-어, -오’에 반모음 ‘j’가 덧붙어 [여, 요]로 발음되는 것인데, [어, 오]와 함께 [여, 요]로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합니다. 어간 모음이 ‘ㄷ, ㄱ, ㄱ’인 경우에는 반모음 ‘j’가 첨가되고 어간 모음이 ‘ㄴ, ㄱ’인 경우에는 반모음 ‘w’가 첨가되지요. 그런데 반모음 ‘j’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만 반모음 ‘w’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표준 발음법 조항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 ① ‘도랑을 뛰어 건넜다.’에서 ‘뛰어’를 [뛰어]로 발음하는 것이 규범 원칙이겠군.
- ② ‘여기가 맛집이오.’에서 ‘맛집이오’를 [맛찌비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겠군.
- ③ ‘밥이 다 되어 간다.’에서 ‘되어’를 [되여]로 발음하는 것은 ‘ㄷ’ 뒤에 오는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덧붙은 예이군.
- ④ ‘꽃이 예쁘게 피어 있다.’에서 ‘피어’를 [피여]로 발음하는 것은 ‘ㄷ’ 뒤에 오는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덧붙은 예이군.
- ⑤ ‘여기가 맛집이 아니오.’에서 ‘아니오’를 [아니요]로 발음하는 것은 ‘ㄷ’ 뒤에 오는 어미 ‘-오’에 반모음 ‘w’가 덧붙은 예이군.

[21004-0093]

04 <보기>를 활용하여 의존 명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1) ㄱ.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모두 모여라.
 나. *데 없는 사람은 모두 모여라.
- (2) ㄱ. 그는 {일하는, 일한, 일할, 일하던} 데가 많다.
 나. 눈이 {오는, *온, *올, *오던} 바람에 길이 미끄럽겠다.
- (3) ㄱ.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나.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모른다.
- (4) ㄱ. 그는 사십 줄에 들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나. 나는 멧돼지를 보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 (5) ㄱ. 나도 너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 주겠어.
 나. 어른이 되면 확장 시절에 네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는 비문법적 표현임.

- ① (1)을 보니, 의존 명사 ‘데’는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군.
- ② (2)를 보니, 특정한 관형사형 어미를 요구하는 의존 명사와 그러한 제약이 없는 의존 명사가 있군.
- ③ (3)을 보니, 일부 의존 명사는 서술어와 함께 쓰일 때 제약을 받기도 하는군.
- ④ (4)를 보니, 의존 명사 ‘줄’은 조사 결합에 상관없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는군.
- ⑤ (5)를 보니, 조사와 형태가 같은 의존 명사도 있군.

[21004-0094]

05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장만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조건

- 홀문장일 것.
- 관형사가 들어 있을 것.
- 주체를 높이는 서술어가 들어 있을 것.

보기

- ㄱ. 다른 분들은 어디 계세요?
- ㄴ.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 ㄷ.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셨다.
- ㄹ. 선생님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004-0095]

0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A: 어제 이 책을 읽었어요.
B: 그 책 재미있니?
- ㉡ A: 하늘 좀 봐. 저 구름 모양이 꼭 강아지 같아.
B: 정말이네.
- ㉢ A: 엄마, 제가 어제 산 청바지 못 보셨어요?
B: 그 옷이 어디로 갔겠어? 잘 찾아봐.
- ㉣ A: 절때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않으셨죠?
B: 기억하고 있어. 이때까지 속고만 살아왔니?
- ㉤ (A와 B가 병원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A: 이곳이 심청이가 입원한 병원이야.
B: 아, 여기가 거기야?

- ① ㉠: ‘이 책’과 ‘그 책’은 모두 A 가까이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 ‘저 구름’은 현재 A와 B의 눈에 보이는 대상을 가리킨다.
- ③ ㉢: ‘그 옷’은 현재 A와 B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가리킨다.
- ④ ㉣: ‘절때’는 A가 상기하는 과거의 시간을, ‘이때’는 B의 발화 시점을 가리킨다.
- ⑤ ㉤: ‘여기’는 A가 언급한 ‘심청이가 입원한 병원’을 대신하여 쓰였고, ‘거기’는 A와 B가 보고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



[01~02] 다음은 사이시옷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빗물’과 ‘물고기’는 둘 다 합성어인데 ‘빗물’에는 사이시옷을 쓰고 ‘물고기’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

학생 2: 그리고 ‘물불[물뿔]’과 달리 ‘물고기[물꼬기]’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 같이 자료를 찾아서 그 이유를 탐구해 보자.

사이시옷은 역사적으로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와 관련이 있다.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대체로 선행하는 체언이 유정물일 경우 ‘의/의/ㅣ’가 사용되었고, 유정물이어도 존칭이거나 무정물일 경우 ‘스’이 사용되었다. 가령 ‘빗물 ← 비 + 스 + 물’과 ‘물고기 ← 물 + 스 + 고기’는 앞의 명사 어근이 뒤의 명사 어근을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방식으로 결합한 합성어여서 관형격 조사 ‘스’이 나타났다. 현대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의’만 사용되며, ‘스’은 관형격 조사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로 합성 명사에 흔적만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는 ‘빗물’처럼 ‘스’이 표기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물고기’처럼 ‘스’이 표기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햇빛[해뵘/햐뵘]’처럼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가거나, ‘빗물[빈물]’처럼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가거나, ‘땀값[땀닙]’처럼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단어에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물고기’처럼 역사적으로 관형격 조사 ‘스’이 있었던 말이라고 하더라도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수 없다. 또 ‘해 + -님 → 해님’처럼 합성어가 아닌 경우나 ‘대나무[대나무]’처럼 음운론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에서는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물고기’는 앞말이 ‘르’로 끝나는 음운 환경에 놓인 말이지만 [물고기]가 아니라 [물꼬기]로 발음해야 한다.

학생 1: 자료를 보니, ‘물불’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겠어. ‘물불’이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지?

학생 2: 맞아. 관형격 기능이란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들 사이의 의미 관계와 관련이 있지.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의 시간, 장소, 용도, 기원과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관형격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물불’은 ‘강산, 논밭, 손밭’ 등처럼 [A],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학생 1: 또 궁금한 게 있어. ‘소고기’는 왜 [소꼬기]로 발음하지 않는 거지?

학생 2: ‘소고기’는 선행 요소가 유정물이므로 단어 형성 과정에서 관형격 조사 ‘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가령 ‘소고기’와 같은 말인 ‘쇠고기’를 보면, ‘쇠고기’는 ‘쇠고기 ← 쇼 + 의 + 고기’라는 단어 형성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겠지.



[21004-0096]

0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가 선행하는 체언의 성격과 관계없이 고정되어 쓰이는군.
- ② 현대 국어에서 ‘물고기’를 [물꼬기]로 발음하는 것은 중세 국어에서의 ‘물고기’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현대 국어의 ‘빗물’과 중세 국어의 ‘빗물’은 둘 다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였던 ‘ㅅ’이 나타난 단어에 해당하는군.
- ④ 현대 국어의 ‘소고기’는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였던 ‘ㅅ’이 쓰일 만한 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고기]로 발음하는 것이겠군.
- ⑤ 현대 국어의 ‘해님’은 ‘ㄴ’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이므로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해님]으로 발음하는 것이겠군.

[21004-0097]

02 위 탐구 활동과 자료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행 요소가 부정물이므로
- ② 선행 요소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 ③ 선행 요소가 유성음으로 끝나는 음운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 ④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는 합성어이므로
- ⑤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를 수식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파생어이므로

[21004-0098]

03 <보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학습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의 설명]

국어의 단모음 ‘ㅏ, ㅑ, ㅓ, ㅣ, ㅕ’는 각각 로마자 ‘a, o, u, i, e’에 대응시킬 수 있지만, 단모음 ‘ㅜ, ㅡ, ㅞ, ㅟ, ㅠ’는 하나의 로마자에 대응시킬 수 없어서 각각 ‘eo, eu, ae, oe, wi’를 사용해서 표기합니다. 또 국어의 이중 모음은 반모음 ‘j’를 지닌 ‘ㅟ, ㅠ, ㅡ, ㅢ, ㅣ, ㅤ’의 경우는 ‘y’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반모음 ‘w’를 지닌 ‘ㅧ, ㅨ, ㅩ, ㅪ’의 경우는 ‘w’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로마자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

제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2. 이중 모음

ㅟ	ㅠ	ㅡ	ㅢ	ㅣ	ㅤ	ㅧ	ㅨ	ㅩ	ㅪ	ㅫ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ㅫ’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 ① ‘ㅠ’의 로마자 표기는 반모음 ‘j’에 대응하는 로마자와 단모음 ‘u’에 대응하는 로마자로 이루어져 있군.
- ② ‘ㅩ’의 로마자 표기는 반모음 ‘w’에 대응하는 로마자와 단모음 ‘e’에 대응하는 로마자로 이루어져 있군.
- ③ ‘ㅟ’와 ‘ㅧ’의 로마자 표기는 두 이중 모음이 서로 같은 단모음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④ ‘ㅡ’와 ‘ㅣ’의 로마자 표기는 두 이중 모음이 서로 다른 반모음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⑤ ‘ㅫ’와 ‘ㅣ’의 로마자 표기는 두 모음이 동일하게 소리 날 때도 항상 다르겠군.

[21004-0099]

04 <보기>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탐구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여야 하는 성분의 개수와 종류는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때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그런데 형태가 동일한 서술어라도 문맥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다를 수 있다. 가령 ‘꽃이 피다.’의 ‘피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나, ‘식빵에 곰팡이가 피다.’의 ‘피다’는 주어뿐 아니라 부사어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또한 같은 종류의 타동사문, 자동사문, 형용사문이라도 개별 용언의 성격에 따라 자릿수를 더 취하는 것이 있다.

- 한 자리 서술어
 - └ 별이 반짝인다. ㉠
 - └ 등불이 밝다. ㉡
- 두 자리 서술어
 - └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
 - └ 그는 군인이 아니다. ㉣
- 세 자리 서술어 - 누나가 동생에게 물을 주었다. ㉤

- ① ㉠: ‘아이들이 눈망울을 반짝인다.’의 서술어 ‘반짝인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② ㉡: ‘누나가 등불을 밝혔다.’의 서술어 ‘밝혔다’는 ‘밝다’와 달리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의 서술어 ‘잡혔다’는 ‘잡았다’와 달리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④ ㉣: ‘얼음이 물이 되다.’의 서술어 ‘되다’를 두 자리 서술어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 ⑤ ㉤: ‘그녀는 방학이면 아이들을 시골에 보냈다.’의 서술어 ‘보냈다’를 세 자리 서술어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21004-0100]

05 <보기>의 ㉠과 ㉡처럼 상하 관계를 이루는 단어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상하 관계는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과일'은 ㉡'사과'를 포함하고 '사과'는 '과일'에 포함되는데, 이때 '과일'을 상위어, '사과'를 하위어라고 한다. 한편 전체-부분 관계는 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부분이 되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이를 이루는 '타이어'의 관계가 전체-부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관계에 있는 단어의 특징 중 하나는 하위어는 상위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부분어는 전체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타이어'는 '자동차'라고 할 수 없다.

	㉠	㉡
①	그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었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날고 있다.
②	나는 식목일을 맞이하여 늘 나무를 심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잘 견딘다.
③	봄이 되니 화단에 꽃이 피었다.	빨간 장미를 보니 옛 추억이 생각이 났다.
④	커다란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수족관에는 은백색의 갈치가 헤엄치고 있었다.
⑤	우리 선수들은 구기 종목에서 강세를 보였다.	최근에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다.

[21004-0101]

06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원리에는 ㉠한자가 지니는 의미와는 관계없이 그 음만을 취하여 표기에 이용하는 것과 반대로 ㉡한자의 음과는 관계없이 그 의미만을 취하는 것이 있다. ㉠의 예로는 '古'는 '옛'이라는 의미와 '고'라는 음을 지니는데, 이 의미와는 관계없이 음만을 취하여 연결 어미 '-고'를 표기할 때 사용한 것을 들 수 있고, ㉡의 예로는 '水'는 '물'이라는 의미와 '수'라는 음을 지니고 있는데, 이 한자를 써 놓고 '물'이라고 읽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 '소나'의 '소'를 표기하기 위해 '素(힐 소)' 자를 이용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 ② '길동군'의 '길'을 표기하기 위해 '永(길 영)' 자를 이용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 ③ '거칠부'의 '거칠'을 표기하기 위해 '荒(거칠 황)' 자를 이용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 ④ '불구내'의 '불'을 표기하기 위해 '弗(아닐 불)' 자를 이용하는 것은 ㉠에 해당하고, '赫(붉은 혁)' 자를 이용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 ⑤ '득옥실'의 '실'을 표기하기 위해 '失(잃을 실)' 자를 이용하는 것은 ㉠에 해당하고, '실포'의 '실'을 표기하기 위해 '絲(실 사)' 자를 이용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20003-0210

01 <보기>의 ㉠~㉥을 참고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에서 ㉠파열음의 평음 ‘ㄱ, ㄷ, ㅂ’ 뒤에 평음이 올 때, 뒤의 평음은 경음화(된소리되기)된다. 그런데 파열음의 평음이 아닌 자음 뒤에 평음이 오더라도 뒤의 평음이 경음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의 평음이 경음화된 경우, ㉢어간 받침 ‘ㄴ, ㅁ’ 뒤의 평음이 경음화된 경우 등이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 꿀잡[꿀잡]을 잔 덕에 결전[決戰][결쩐]을 잘 치렀다.
- ㉢: 각자[各自][각짜] 맡은 일을 적고[적꼬] 가세요.
- ㉣: 흰색[-色][흰색] 운동화를 신다[신:따].
- ㉤: 밥심[밥쌈]으로 도자기를 굽고[굽:꼬] 있다.
- ㉥: 감자[감자]는 여기에 담자[담:짜].

- ① ㉡: ‘꿀잡’과 달리 ‘결전’에서 경음화가 일어난 것은 ㉠에 해당한다.
- ② ㉢: ‘각자’와 ‘적고’에서 경음화가 일어난 것은 ㉡에 해당한다.
- ③ ㉣: ‘흰색’과 달리 ‘신다’에 경음화가 일어난 것은 ㉢에 해당한다.
- ④ ㉤: ‘밥심’과 ‘굽고’에서 경음화가 일어난 것은 ㉣에 해당한다.
- ⑤ ㉥: ‘감자’와 달리 ‘담자’에서 경음화가 일어난 것은 ㉤에 해당한다.

20003-0211

02 ㉠,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의존 명사가 쓰인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말 의존 명사는 다른 명사와는 달리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제약 외에도 의존 명사는 그 쓰임에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결합할 수 있는 격 조사가 제한됨.㉠
-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제한됨.㉡
- 결합할 수 있는 서술어의 종류가 한정적임.

일부 의존 명사는 이러한 제약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가령, ‘내 친구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와 같은 문장에서 의존 명사 ‘리’는 주격 조사와 주로 결합하고, 관형사형 어미 ‘-을/-ㄹ’의 수식만을 받으며 결합할 수 있는 서술어도 ‘있다/없다’류에 한정되는 것이다.

- ① 평소 느낀 바를 말해라.
- ② 그 친구가 돌아올 줄 몰랐다.
- ③ 형이 건강하니 기쁠 따름이다.
- ④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골라 보아라.
- ⑤ 집에 오는 동안에 친구를 만났다.

20003-0212

03 <보기>의 파생어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날개, 덮개, 베개, 지우개
- ㉡ 군기침, 군말, 군살, 군것
- ㉢ 꼬이다, 놓이다, 떼이다, 쌓이다
- ㉣ 끊이다, 높이다, 줄이다, 붙이다
- ㉤ 신비롭다, 지혜롭다, 풍요롭다, 향기롭다

- ① ㉠에서 접미사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고, ㉡에서 접두사는 ‘-쓸데없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② ㉠은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다르지만, ㉢에서는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모두 동일하다.
- ③ ㉢에 쓰인 접미사는 피동사를 파생하고, 동일한 형태의 접미사가 ㉣에서는 사동사를 파생한다.
- ④ ㉣에서 접미사는 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과 결합하지만, ㉤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과만 결합한다.
- ⑤ ㉣에서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없는 어근과 결합하지만, ㉤에서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어근과 결합한다.

20003-0213

04 <보기>를 보고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외래어 표기법 제3항에서는 받침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외래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이 7개의 자음들만 발음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book’은 ‘북’으로 표기할 수도 있으나 뒤에 조사 ‘이’, ‘을’ 등이 오면 [부기], [부글]로 발음되는 점을 반영하여 ‘북’이라고 적는다. 만약 [부키], [부쿨]로 발음한다면 ‘북’으로 적었을 것이다. ‘racket’을 ‘라켄’으로 적지 않고, ‘라켓’으로 적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 ① ‘숍(shop)’의 받침 ‘ㅂ’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ㅍ’으로 발음된다.
- ② ‘캣(cat)’의 받침 ‘ㅅ’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ㅅ’으로 발음된다.
- ③ ‘킥(kick)’의 받침 ‘ㄱ’은 실제 발음에서는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 ④ ‘톱(top)’의 받침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ㅂ’으로 발음된다.
- ⑤ ‘로봇(robot)’의 받침은 뒤에 어떤 조사가 와도 항상 ‘ㅅ’으로 발음된다.



20003-0214

05 <보기>의 (가)에 들어갈 ㉠~㉥에 대한 예문과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지원: 선생님, 주어를 표시하는 조사도 ‘이/가’이고, 보어를 표시하는 조사도 ‘이/가’인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선생님: 주어와 보어는 문장을 구성하며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체 문장 안에서 해당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낸다. ㉡반면, 보어는 문장에서 주어를 제외하고, 서술어 ‘되다, 아니다’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서술어와의 관계를 잘 살펴야 해. ㉢그리고 주어와 보어에 항상 조사 ‘이/가’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사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 그럼 각각의 예를 살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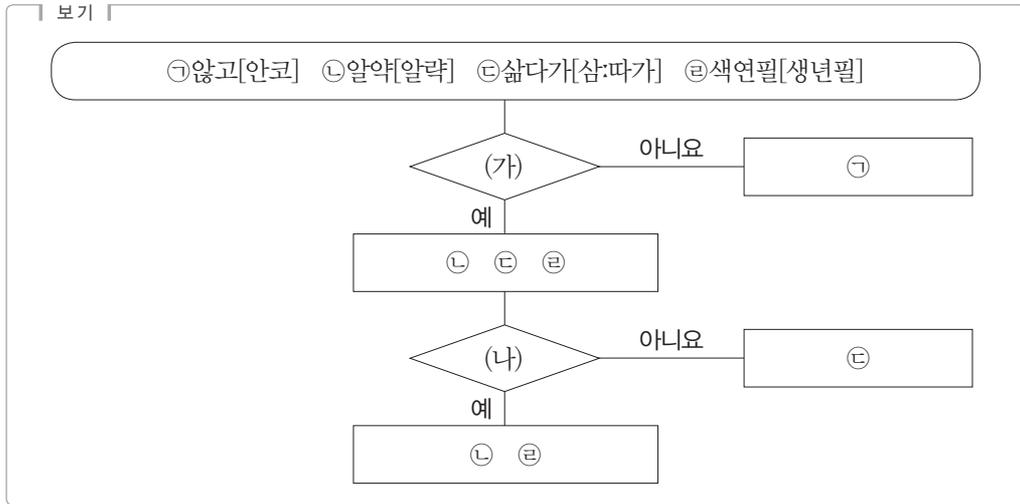
(가)

	유형	예문	설명
①	㉠	저기에 우체국이 있다.	‘우체국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저기’가 주어이다.
②	㉡	지수만 반장이 되었다.	서술어 ‘되다’가 사용되었으며, ‘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지수만’이 보어이다.
③	㉢	나는 대학생이 되고 싶다.	서술어에 ‘되다’가 포함되었으므로 ‘대학생이’가 보어이다.
④	㉣	동생이 책을 안 읽는다.	서술어에 ‘아니다’가 포함되었으므로 ‘책을’이 보어이며, 보어에 ‘이/가’가 아닌 ‘을’이 사용된 예이다.
⑤	㉤	부모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께서’는 주어를 표시하는 조사가 아니므로 ‘부모님’은 주어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20003-0215

01 <보기>의 ㉠~㉢을 다음과 같이 나눌 때, (가)와 (나) 각각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가)	(나)
①	음운의 탈락이 일어나는가?	음운의 축약이 일어나는가?
②	음운의 탈락이 일어나는가?	음운의 첨가가 일어나는가?
③	음운의 교체가 일어나는가?	음운의 탈락이 일어나는가?
④	음운의 교체가 일어나는가?	음운의 축약이 일어나는가?
⑤	음운의 교체가 일어나는가?	음운의 첨가가 일어나는가?



20003-0216

02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연결된 구성은 크게 합성 용언, ㉠보조 용언 구문, 연속 동사 구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성 용언은 ‘건너뛰다’와 같이 이미 한 단위로 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므로 사전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조 용언 구문과 연속 동사 구문은 다른 성분을 두 용언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 보조 용언 구문의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관계가 비교적 긴밀하여 두 성분 사이에 다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없다. 이에 비해 연속 동사 구문에서는 두 용언 사이에 부가적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있다. 결국 구성 성분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합성 용언이 가장 긴밀하고 연속 동사 구문이 가장 긴밀하지 않은 구성이며 보조 용언 구문이 그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나무 밑에서 소나기를 피했다 가자.
- ② 누나는 한참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 ③ 동생은 독도로 여행을 떠나 버렸다.
- ④ 그 영화는 원작을 먼저 읽고 보아라.
- ⑤ 오늘 아침에는 사과나 하나 깎아 먹자.

20003-0217

03 <보기>는 ‘길’의 의미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과 ㉡에 해당하는 의미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

다의어는 둘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대개 다의어의 의미는 구체적인 의미로부터 추상적인 의미로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자료의 용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길’의 의미를 알아보자.

의미	용례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한적한 <u>길</u> 을 따라 걸었다.
(㉠)	고향으로 가는 <u>길</u> 을 물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온 <u>길</u> 을 더듬어 보자.
어떤 일을 하는 도중	집에 오는 <u>길</u> 에 우체국에 들렀다.
(㉡)	근대화의 <u>길</u> 에 들어섰다.

- ① [㉠: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
 ㉡: 지향하는 방향이나 목적
- ② [㉠: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
 ㉡: 물 위나 공중에서 일정하게 다니는 곳
- ③ [㉠: 물 위나 공중에서 일정하게 다니는 곳
 ㉡: 지향하는 방향이나 목적
- ④ [㉠: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
 ㉡: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
- ⑤ [㉠: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
 ㉡: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



20003-0218

04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수정하는 활동을 할 때 적절한 것은?

「보기 1」

바치다: 1. 신이나 웃어른에게 정중하게 드리다.
2. 반드시 내거나 물어야 할 돈을 가져다주다.
3. 도매상에서 소매상에게 단골로 물품을 대어 주다.
4.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

받치다: 1.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않고 위로 치밀다.
2. 단단한 곳에 닿아 몸의 일부분이 아프게 느껴지다.
3. 화 따위의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다.

받히다: ‘받다(머리나 뺨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의 피동사.

받치다: 1. ‘받다(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 따위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2. 구멍이 뚫린 물건 위에 국수나 야채 따위를 올려 물기를 빼다.

「보기 2」

평생을 과학 연구에 몸을 ㉠받쳤다.
조상들께 제물을 ㉡받혀 우리 고장의 안녕을 빌었다.
맨바닥에서 잠을 자려니 등이 ㉢받쳐서 잠이 오지 않는다.
아침에 먹은 것이 자꾸 ㉣받쳐서 병원에 가야겠다.
씻어 놓은 상추를 채반에 ㉤받친다.

- ① ㉠은 ‘받혔다’로 고쳐야 한다.
- ② ㉡은 ‘바쳐’로 고쳐야 한다.
- ③ ㉢은 ‘받혀서’로 고쳐야 한다.
- ④ ㉣은 ‘바쳐서’로 고쳐야 한다.
- ⑤ ㉤은 ‘받힌다’로 고쳐야 한다.

[05~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한 연구 기관에서 1990년 이후에 출판된 다양한 갈래의 문어 자료에서 3백만 개의 단어를 추출해 통계 처리를 한 후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조사한 내용이다.

순위	단어	분류	예문
1	이다	서술격 조사	㉠
2	것	의존 명사	㉡
3	있다	보조 동사	
4	있다	형용사	
5	되다	동사	㉢
6	수	의존 명사	㉣
7	나	대명사	㉤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품사의 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알려 준다. 첫째,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부사와 같은 단어들은 순위에서 보이지 않고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나 의존 명사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1~3위에 조사와 의존 명사, 보조 동사가 올라가 있으며 형용사와 동사는 그보다 낮은 4, 5위이다. 둘째,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이 본용언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있다’의 예를 흥미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있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있다 「동사」 「1」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2」 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

「형용사」 「1」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2」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

「보조 동사」 「1」 (주로 동사 뒤에서 ‘-어 있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2」 (주로 동사 뒤에서 ‘-고 있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위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03-0219

0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에서는 문법적 의미가 실질적 의미보다 먼저 제시된다.
- ② 사전에서의 의미 제시 순서는 실제 사용 빈도 순서로 제시되지 않았다.
- ③ ‘검은색 꽃도 있어.’에서의 ‘있다’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7위 안에 들어간다.
- ④ 형용사 ‘있다’와 보조 동사 ‘있다’는 실질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로 구별할 수 있다.
- ⑤ ‘지금 가고 있어.’에서의 ‘있다’는 ‘있다’ 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경우에 대한 예이다.

20003-0220

06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잘 지냈어? 정말 오랜만이야.
- ② ㉡: 내일 현장 학습 도시락은 각자 준비할 것.
- ③ ㉢: 내년엔 대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많다.
- ④ ㉣: 종일 고민만 했는데 드디어 좋은 수가 생각났다.
- ⑤ ㉤: 나의 좌우명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다.



20003-0221

0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를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기

국어는 음절의 끝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음절 끝에서 다음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음절 끝에 자음군이 오면 한 자음이 탈락한다. ㉠
- 음절 끝에 마찰음이나 파찰음이 오면 모두 [ㄷ]으로 교체된다. ㉡
- 음절 끝에 파열음 중 경음(된소리)이나 격음(거센소리)이 오면 파열음의 평음(예사소리)으로 각각 교체된다. ㉢

	㉠	㉡	㉢
①	밖[박]	젓[잔]	숲[습]
②	값[갑]	젓[잔]	숲[습]
③	값[갑]	낮[남]	뚫[툇]
④	값[갑]	끝[꿍]	서넉[서녁]
⑤	밖[박]	낮[남]	서넉[서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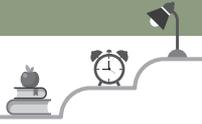
20003-0222

02 <보기>의 ㉠이 확인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형태소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어떤 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았-’, ‘-었-’, ‘-였-’ 등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았-’과 ‘-었-’은 결합하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 모음 종류에 따라 선택된다. 반면 ㉠선어말 어미 ‘-였-’은 특별한 어간과 결합할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았-’, ‘-었-’과 차이를 보인다.

- ① 노인은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였다.
- ② 강아지로 알고 키운 것이 호랑이었다.
- ③ 그는 천천히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 ④ 후배들은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 ⑤ 나는 거울을 보고 움츠러든 어깨를 뺐다.



20003-0223

03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일상적으로 잘못 쓰기 쉬운 준말의 예로 ‘되’와 ‘돼’가 있어요. ‘돼’는 ‘되어’의 준말인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

‘㉠’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췌’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선생님: “일이 뜻대로 (되어→)돼 간다.”에서나 “나도 가게 (되었다→)됐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간 ‘되-’ 뒤에 어말 어미 ‘-어, -었-’이 붙은 ‘되어, 되었다’는 ‘돼, 됐다’로 적을 수 있는 것이예요. 이 규정은 ‘되-’뿐 아니라 ‘㉠’로 된 어간에 모두 적용돼요. 결국 어간이 ‘㉠’인 단어들은 어간과 어미가 어울려 줄어들지 않은 본딴말로 적을 수도 있고, 어간과 어미가 어울려 줄어든 준말로 적을 수도 있는 것이예요.

학생: 그러면

㉠

- ① ‘햇별을 췌었다.’라고 적을 수 있겠군요.
- ② ‘명절 잘 쇠세요.’라고 적을 수 있겠군요.
- ③ ‘나사를 죄야 한다.’라고 적을 수 있겠군요.
- ④ ‘선생님을 뵈러 갔다.’라고 적을 수 있겠군요.
- ⑤ ‘빗물이 웅덩이에 꿨다.’라고 적을 수 있겠군요.

[04~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피동은 주어와 주체적인 의지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하여 당하는 일을 말하며, 피동문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사가 서술어로 오는 문장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동문에는 서술어인 피동사, 문장의 주체, 그리고 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남의 힘’이 모두 드러나기 마련이다. ㉠ 피동사, 문장의 주체, ‘남의 힘’이 모두 드러난 피동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ㄱ.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피동문)
 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능동문)

(1ㄱ)은 주어인 ‘도둑’, 피동사인 ‘잡히다’와 도둑이 잡히게 한 ‘경찰’이 모두 분명하게 드러나는 피동문이다. 한편, 문법적으로 피동문을 파악할 때에는 대응되는 능동문(1ㄴ)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피동문에 서의 ‘남의 힘’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능동문에서는 주어가 된다. 또한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문에서는 목적어가 되며, 피동사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하기 이전의 상태인 동사로 전환된다. 즉, (1ㄱ)은 문법적으로 대응되는 능동문이 존재하는 피동문이다.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나타나는데, 이때 부사어가 생략되는지 혹은 실현되지 않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1ㄱ)은 ‘도둑이 잡혔다.’로 쓸 수도 있지만 생략된 부사어를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능동문 ‘나는 전화번호를 바꾸었어요.’를 피동문으로 바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나에게 바뀌었다.’로 나타낼 수 없다. ‘전화번호가 나에게 의해 바뀌었어요.’도 어색하다. 주어인 ‘나’가 전화번호를 바꾼 것이 분명하여도 피동문에서는 ‘나’가 실현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가 가장 자연스럽다.

또한 ㉠ 대응되는 능동문이 아예 없는 특수한 피동문도 존재한다. 능동사 ‘풀다’의 피동사는 ‘풀리다’이므로 능동문 ‘경찰은 의심을 풀었다.’에 대응하는 피동문은, 비록 부사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의심이 풀렸다.’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날씨가 풀렸다.’에 대응하는 능동문은 아예 없다. ‘날씨를 푸’는 상황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003-0224

04 뒷글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동생의 꿈이 이루어졌다.
 ② ㉠: 나는 바닥에 미끄러졌다.
 ③ ㉡: 그는 수상자로 뽑혔다.
 ④ ㉡: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⑤ ㉡: 산 위에 달이 걸렸다.



20003-0225

0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동생의 방문이 열렸다.
- ㉡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 ㉢ 연우가 내 이름을 불렀다.
- ㉣ 모둠별로 일을 나누지 않았다.
- ㉤ 버스 안에서 지호의 발이 밟혔다.

- ① ㉠: 대응하는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나타나며, 피동문의 부사어는 생략이 불가능한 예이다.
- ② ㉡: 대응하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나타나며, 피동문의 주어는 생략이 불가능한 예이다.
- ③ ㉢: 대응하는 피동문의 주어가 능동문의 부사어로 나타나며, 능동문의 부사어는 생략이 가능한 예이다.
- ④ ㉣: 대응하는 피동문의 주어가 능동문의 목적어로 나타나며, 능동문의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한 예이다.
- ⑤ ㉤: 대응하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목적어로 나타나며, 능동문의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한 예이다.

20003-0226

06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팔구월에 늙자닌 가지를 ㉠꼭지째 한 치 남짓씩 칼로 그쳐 밀을 녹여 그출 ㉡불라 한열이 적
둥흔 디 두고 쓰라 쏘 가지를 김흔 광주리에 지를 흔 불만 실고 가지 흔 불 녀코 쏘 지 실고
쏘 가지 ㉢녀허 ㉣그르시 츠겨든 두터이 퍼 닉 업는 디 두고 겨을헤 쓰면 ㉤도흐니라
- 『음식디미방』(1670년경)

<현대어 풀이>

팔구월에 늙지 않은 가지를 꼭지째 한 치 남짓씩 칼로 끊어 밀랍을 녹여 끝에 발라 한열이 적
당한 데 두고 쓰라. 또 가지를 깊은 광주리에 재를 한 겹만 깔고, 가지 한 겹을 넣고 또 재 깔고
또 가지 넣어, 그릇이 차거든 두껍게 덮어 연기 없는 데 두고 겨을에 쓰면 좋으니라.

- ① ㉠: 현대 국어와 달리, 어두에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② ㉡: 현대 국어와 달리, 첫 번째 음절에 ‘·’가 나타나고 있다.
- ③ ㉢: 현대 국어와 달리, 첫 번째 음절에서 ‘ㄴ’과 반모음 ‘j’가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
- ④ ㉣: 현대 국어와 달리, 이어 적기가 나타나고 있다.
- ⑤ ㉤: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적용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 표기법의 변화는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라는 두 가지 표기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음주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원리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받음대로 이어서 적는다. [둘째], 음운 변동을 표기에 반영한다. 한편, 표의주의는 형태소의 원래 형태를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리를 뜻한다.

중세 국어의 경우, 이어 적기가 표기법의 원칙이었으며, 음운 변동이 적용된 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현대 국어보다 강했다. ‘ㄹ’ 탈락과 ‘-’ 탈락은 항상 음운 변동이 적용된 형태를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동일하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 말 평파열음화), 격음화(거센소리되기) 등을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하여, 중세 국어에서는 종성에 8개의 자음을 표기하였다. 이것은 종성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8개의 자음만 실제로 발음되었기 때문이다. 이 8개에 속하지 않는 자음이 종성에 놓이면 음운 변동을 적용하여 ‘빛+과 → 빛과’, ‘앞-^{*}+ -던 → 입던’ 등의 예와 같이 표기하였다.

중세 국어 이후 나타난 표기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형태소 사이의 경계를 밝혀 적는 끊어 적기가 널리 쓰이게 된다. 근대 국어에는 거듭 적기 방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거듭 적기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앞 형태소의 끝 자음을 종성에도 적고 뒤 형태소의 초성에도 적는 방식이다. 앞 형태소의 자음을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이어서 적는다는 점에서는 이어 적기에 가깝지만, 앞 형태소의 종성에도 받침을 적어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가 드러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끊어 적기에 가깝다. 예를 들어, ‘님금+이’를 ‘님금미’로, ‘깊-+ -은’을 ‘깊픈’으로 적는 것이다. 이때 종성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중 하나를 적는 표기를 따랐기 때문에, 종성의 자음이 뒤 형태소의 초성 자음과 차이가 나기도 하였다.

현대 국어에서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따라 표음주의적 표기와 표의주의적 표기를 병행하되, 전반적으로 표의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표음주의적 경향이 더 강한 표기법도 있는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그 예이다.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을 따라 적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비음화, 유음화, ‘ㄴ’ 첨가, 구개음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한다. 단, 격음화는 체언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기에 반영하며, 경음화(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처럼 국어의 표기법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

* 앞-: ‘을’의 옛말.



20003-0227

0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옷 + 을’을 중세 국어에서 ‘오슬’로 적은 것은 ㉠의 ‘첫째’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② ‘쓰-+-어도’를 중세 국어에서 ‘씨도’로 적은 것은 ㉠의 ‘첫째’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③ ‘살-+-노라’를 현대 국어에서 ‘사노라’로 적는 것은 ㉠의 ‘둘째’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④ ‘집 + 의’를 중세 국어에서 ‘지비’로 적은 것은 ㉠의 예이고, 현대 국어에서 ‘집의’로 적는 것은 ㉡의 예이다.
- ⑤ ‘값-+-고’를 중세 국어에서 ‘갑고’로 적은 것은 ㉠의 예이고, 현대 국어에서 ‘값고’로 적는 것은 ㉡의 예이다.

20003-0228

02 <보기>의 ‘고유 명사’를 ㉠에 따라 표기할 때, ㉠~㉡를 적절하게 구분한 것은?

보기			
고유 명사	표준 발음	로마자 표기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
별내	[별래]	Byeollae	㉠
동막	[동막]	Dongmak	㉡
울산	[울싼]	Ulsan	㉢
집현전	[지편전]	Jiphyeonjeon	㉣
학여울	[항녀울]	Hangnyeoul	㉤

- | | 반영 | 미반영 |
|---|---------------|---------------|
| ① | (a), (b), (c) | (d), (e) |
| ② | (a), (b), (e) | (c), (d) |
| ③ | (a), (e) | (b), (c), (d) |
| ④ | (b), (c), (e) | (a), (d) |
| ⑤ | (c), (d), (e) | (a), (b) |



20003-0229

0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용언 어간	-고	-으니 / -니	-아 / -어
㉠	잠그-	잠그고	잠그니	잠가
㉡	모르-	모르고	모르니	몰라
㉢	무겁-	무겁고	무거운니	무거워
㉣	파랑-	파랑고	파라니	파래
㉤	짓-	짓고	지으니	지어

- ① ㉠에 속하는 ‘잠그-’에 ‘-아/-어’가 결합하면 ‘잠가’라고 적어야 한다.
- ② ㉡에 속하는 ‘모르-’에 ‘-아지다/-어지다’가 결합하면 ‘몰러지다’라고 적어야 한다.
- ③ ㉢에 속하는 ‘무겁-’에 ‘-아/-어’가 결합하면 ‘무거워’라고 적어야 한다.
- ④ ㉣에 속하는 ‘파랑-’에 ‘-았-/-었-’이 결합하면 ‘파랴’라고 적어야 한다.
- ⑤ ㉤에 속하는 ‘짓-’에 ‘-으니/-니’가 결합하면 ‘지으니’라고 적어야 한다.



20003-0231

05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문장 속에서 ㉠~㉣에 해당하는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에서 조사는 항상 앞말에 붙여 쓰며, ㉠조사의 앞말로는 체언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사의 앞말로 다른 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조사의 앞말로 안긴절이 오기도 한다. 특히 인용절 다음에 붙는 인용의 부사격 조사도 항상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① ㉠: 너밖에 없어.
- ② ㉠: 핸드폰은커녕 다 안 돼.
- ③ ㉡: 입구까지만도 30분이 걸렸다.
- ④ ㉡: 문 여는 시간은 10시부터 입니다.
- ⑤ ㉢: “지금 다들 모여라.”라고 말씀하셨다.



20003-0232

06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학습 활동> (가)~(라)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는 맥락의 도움으로 중의성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제 발화에서는 문장의 어느 위치에 심을 두어 끊어 읽느냐에 따라 중의성이 해소되기도 한다.

<학습 활동>

아래 문장의 의미에 맞게 끊어 읽는 위치를 표시해 보자.

문장	의미	끊어 읽는 위치
창수는[㉠]올면서[㉡]떠나는[㉢]영이를[㉣]배웅했다.	우는 사람: 창수	(가)
	우는 사람: 영이	(나)
의사는[㉤]경찰과[㉥]환자를[㉦]둘러보았다.	둘러본 대상: 환자	(다)
	둘러본 대상: 경찰, 환자	(라)

	(가)	(나)	(다)	(라)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문법 10 종합 ①

9003-0210

01 ㉠, ㉡의 사례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표준 발음법 제8항을 보면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국어의 음절 종성에서 최대 발음 가능한 자음의 개수가 1개이며 그마저도 종류가 7가지로 제한된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강력한 제약이다. 그래서 형태소끼리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제약을 어기는 형태가 나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 규칙이 적용되어 올바른 형태로 바꾸어 준다. 이 두 가지 음운 변동은 단어에 따라 ㉠하나만 적용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기도 한다.

	㉠	㉡
①	흙도[혹또]	입고[일꼬]
②	달고[달코]	흙도[혹또]
③	달고[달코]	웁다[읍따]
④	웁다[읍따]	달고[달코]
⑤	입고[일꼬]	웁다[읍따]

9003-0211

02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동사와 사동사는 대표적인 파생 동사들이다. 예를 들어 피동사 ‘(문)이 닫히다’는 ‘닫다’에 피동 접사 ‘-히-’가 결합된 파생 동사이고, 사동사 ‘(환자)를 살리다’는 ‘살다’에 사동 접사 ‘-리-’가 결합된 파생 동사이다. 이들 파생 동사들을 형성하는 접미사 ‘-히-’나 ‘-리-’는 동사에 결합하여 피동사나 사동사를 파생하는 것이다. 동사를 파생하는 접미사가 이처럼 ㉠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하는 경우나 ㉡동사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용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하는 경우, ㉣부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하는 경우, ㉤명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하는 경우도 있다.

- ① ㉠: 동생은 재치 있는 말로 친구를 잘 웃겼다.
- ② ㉡: 선수들이 항의하며 심판을 밀쳤다.
- ③ ㉢: 눈이 내리자 형은 차의 속력을 늦췄다.
- ④ ㉣: 고향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인다.
- ⑤ ㉤: 누나는 친구들과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다.



9003-0212

03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섭섭치 않게’와 ‘섭섭지 않게’ 중 올바른 표기는 무엇인가요?

▶ 답변: ‘섭섭하지 않게’에서 ‘섭섭하지’를 줄여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물어보셨네요. 여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듦 때,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되면 거센소리로 적습니다. 그러나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하’를 적지 않습니다. ‘섭섭하지’의 경우에는 ‘하’가 아주 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섭섭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ㅏ’만 줄고 ‘ㅎ’이 다음 음절 첫소리와 어울리는 경우와 ‘하’가 아주 준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 답변: 올림소리 뒤에서는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됩니다. 반면에 안올림소리 받침 뒤에서는 ‘하’가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질문: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

- ① ‘간편하게’는 ‘간편케’로 적을 수 있겠군요.
- ② ‘심심하다’는 ‘심심타’로 적을 수 있겠군요.
- ③ ‘익숙하지 않다’는 ‘익숙치 않다’로 적을 수 있겠군요.
- ④ ‘깨끗하지 않다’는 ‘깨끗지 않다’로 적을 수 있겠군요.
- ⑤ ‘다정하지 않다’는 ‘다정치 않다’로 적을 수 있겠군요.

[04~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어의 ‘이다’는 다른 단어와 어울려 ‘연필이다’, ‘지우개이다’처럼 쓸 수 있다. 다만 앞에 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이것은 지우개다’처럼 ‘이’가 탈락하기도 한다. 반면 앞에 오는 단어가 자음으로 끝날 때, 즉 받침이 있을 때에는 ‘연필다’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이’가 탈락될 수 없다. 과거를 나타내는 ‘-었-’과 함께 쓰일 때에는 ‘연필이었다’, ‘지우개이었다’처럼 쓸 수 있는데, 이때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서는 ‘이었다’가 줄어들어 ‘였다’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연필이었다’, ‘지우개였다’로 쓰이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필이었다’처럼 ‘이다’에 ‘이었-’이 줄어들든 ‘였-’이 결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다’와 ‘이었다’의 ‘이-’가 중복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필이었다’, ‘경험이었다’, ‘생각이었다’는 모두 틀린 표기이다. ‘이에요’의 경우도 같다. ‘연필이에요’, ‘지우개이에요(→ 지우개예요)’로 쓸 수 있지만 ‘연필이에요’라고는 쓸 수 없다. ㉠

그렇다면, ‘아니었다’와 ‘아니였다’ 중 어떤 것이 맞는 표기일까? 정답은 ‘아니었다’이다. ‘아니다’의 ‘아니’는 ‘지우개’와 같은 명사가 아니다. ‘아니다’는 그 자체로 ‘붙다’, ‘적다’와 같은 형용사로 ‘붙었다’, ‘적었다’로 쓰는 것처럼 ‘아니었다’로 쓰면 된다. ‘아니다’에 ‘이다’가 다시 결합하여 ‘아니였다’로 쓰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9003-0213

04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와 같이 ‘경험이에요’, ‘생각이에요’도 모두 틀린 표기이다.
- ② ‘연필이에요’는 ‘연필 + 이- + 이- + -에요’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③ 받침이 없는 명사와 ‘이에요’가 쓰일 때만 ‘이에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④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이다’의 ‘이-’가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즉,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 ‘명사 + 이어요’로 쓰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9003-0214

0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아니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아니다’는 용언으로 활용을 한다.
- ② ‘아니다’는 ‘아니 + 이다’로 분석된다.
- ③ ‘아니다’에 ‘-에요’가 결합하면 ‘아니예요’로 쓰면 된다.
- ④ ‘아니다’의 ‘아니’는 모음으로 끝나므로 ‘이-’가 탈락된 것이다.
- ⑤ ‘붙다’, ‘붙고’, ‘붙어서’로 쓰는 것처럼 ‘아니다’, ‘아니고’, ‘아니여서’로 쓰면 된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표기법 차이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지만 특히 두드러진 것은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현대 국어의 경우 ‘한글맞춤법’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며 이 둘은 거의 대등한 자격을 가진다. 반면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중세 국어 표기법의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하나는 이어 적기(연철)이다.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면 앞 형태소의 자음을 다음 형태소의 초성으로 내려 적는 것이 이어 적기이다. 이러한 이어 적기는 연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어 적기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으로 본다. 현대 국어의 경우 대체로 불규칙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어 적기 대신 끊어 적기(분철)를 한다. 이것은 형태소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이 아니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 방식이다. 이러한 표기법의 차이는 용언 어간 ‘먹-’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현대 국어는 ‘먹어, 먹으니’와 같이 끊어 적고 중세 국어는 ‘머거, 머그니’와 같이 이어 적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어 적기 외에 중세 국어 표기법이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음운 변동이 적용되는 것을 표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들 수 있다. 중세 국어는 음절 종성에서 8개의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발음되었다. 현대 국어와 비교할 때 ‘ㅅ’이 종성에서 발음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발음을 표기에도 반영하여 종성에 표기되는 자음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로 8가지로 국한되었다. 가령 현대 국어라면 ‘높고, 높더라, 높다’로 표기할 것을 중세 국어에서는 ‘눉고, 눉더라, 높다’로 표기한다. 이것은 종성에서의 발음을 표기에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 외에 ‘논논(농+논), 문노라(문+노라)’와 같은 예도 현대 국어와 달리 비음화라는 음운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 표기법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향이 훨씬 강했음을 말해 준다.

9003-0215

01 밑줄 친 ㉠~㉣ 중 ㉡의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불휘 ㉠기픈 남근 브락매 아니 뭇썩 ㉡꽃 ㉢도코 여름 하느니
㉣싹미 기픈 ㉤므른 ㄱㅁ래 아니 그출썩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현대역]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움직이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 그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로 가느니 - "용비어천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9003-0216

02 (가)를 참고할 때 (나)의 활동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에 대립되는 방식이 ‘어법에 맞도록 적는’ 방식이다. 이어 적기 대신 끊어 적기를 하여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를 명확히 밝혀 적거나,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더라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아서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혀 적는 것이 곧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다.

(나) 다음은 용언 어간 ‘굽-’의 활용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 중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활용형과 어법에 맞도록 적은 활용형을 구분해 보자.

구우니, 굽고, 구운, 굽는, 구워

- | | <u>소리 나는 대로 적은 활용형</u> | <u>어법에 맞도록 적은 활용형</u> |
|---|------------------------|-----------------------|
| ① | 구우니, 구운, 구워 | 굽고, 굽는 |
| ② | 구우니, 구운 | 굽고, 굽는, 구워 |
| ③ | 굽고, 구운, 굽는 | 구우니, 구워 |
| ④ | 구운, 구워 | 구우니, 굽고, 굽는 |
| ⑤ | 굽고, 굽는 | 구우니, 구운, 구워 |



9003-0217

03 <보기 1>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2>의 ㉠~㉣을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와/과’는 동일한 형태로 부사격 조사나 접속 조사로 모두 쓰일 수 있어 구별이 필요하다.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조사를 ‘와/과’ 뒤에 넣어 보는 것이다. 부사격 조사 뒤에는 보조사를 첨가할 수 있는 반면, 접속 조사 뒤에는 보조사를 첨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부사격 조사를 취하는 명사는 주어와 자리를 바꿀 수 있지만, 접속 조사가 붙은 명사는 그럴 수 없다. 끝으로 부사격 조사는 그것이 결합된 성분이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접속 조사와 다르다.

【보기 2】

※ 다음 문장에서 쓰인 ‘와/과’가 접속 조사인지 부사격 조사인지 구분해 보자.

- ㉠ 막내는 큰형과 닮았다.
- ㉡ 누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 ㉢ 내 동생과 영희는 매우 친하다.
- ㉣ 영화 속 주인공은 악당과 맞서 싸웠다.

	<u>접속 조사</u>	<u>부사격 조사</u>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9003-0218

04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담화에서 화자와 청자는 서로에 대해 ‘공손성’을 지키기 위해 문법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복잡한 버스 안에서 뒷문으로 내리기 위해 “내립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르시다’는 청유형의 어미인데, 함께 내리자는 의미가 아닌 “내리려고 하니 비켜 달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공손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에 담긴 ‘속뜻’을 공손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은 ‘속뜻’의 문장과는 다른 문장 종결 표현을 사용하거나 문장의 형식을 바꾸기도 한다. 또한 추측하기, 돌려 말하기 등의 방식을 통해 문장을 새롭게 구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

	담화	분석
㉠	상사: 지금 보고서 가지고 올라올 수 있나? 사원: 지금은 외근 중이라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원은 상사의 요청에 대해 ‘보고서를 지금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을 공손하게 전달하기 위해 ‘-르 것 같다’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	사장: 무슨 서류가 필요하지? 비서: 네, 내일까지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서는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해 달라.’라는 내용을 공손하게 전달하기 위해 조건문을 사용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	교사: 10쪽은 은정이가 읽어 볼래? 학생: 네, 사람들은 말소리나 문자를 ...	교사는 ‘읽어라.’라는 명령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명령의 의미를 의문문으로 전달하였다.
㉣	동준: 이 문제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 지용: 아, 이렇게 하면 풀려.	지용이는 문제를 못 풀고 있는 동준이를 배려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의미를 표현하지 않고 피동문으로 표현하였다.
㉤	혜윤: 도대체 지금 몇 시야? 몇 시냐고? 현정: 진짜 미안해. 길이 너무 막혔어.	약속 시간에 늦은 현정의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혜윤이는 의문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였다.



9003-0219

05 <보기>의 탐구 과정을 참고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지훈이와 정원이는 과거 시제에 대한 발표 수업을 준비하다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는 ‘-았-/-었-’뿐 아니라 ‘-더-’도 있다. 그러나 ‘-았-/-었-’과 달리 ‘-더-’는 몇 가지 제약을 가진다. 첫째, ‘-더-’는 화자가 자신의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지각한 내용을 떠올리며 말할 때 쓰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와 같이 쓰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생이 밥을 먹더라.’는 자연스럽지만, ‘내가 밥을 먹더라.’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둘째, ‘-더니’는 주어가 2인칭, 3인칭인 문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았더니/-었더니’는 주어가 1인칭인 문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훈: 화자가 자신의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떠올릴 때 ‘-더-’와 1인칭 주어가 같이 쓰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흥미로워. 이 제약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예외는 없을까?

정원: 그럼 네가 첫 번째 제약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예외에 관한 심화 내용을 찾아봐. 나는 두 번째 제약에 관한 예문을 조사할게.

지훈이의 조사 내용	정원이의 조사 내용
㉠	㉡

- ① ㉠: ‘정신을 차려 보니, 내가 낯선 곳을 걷고 있더라.’처럼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인식하게 되었을 때 ‘-더-’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어.
- ② ㉠: ‘내가 어제 뭘 먹었더라?’처럼 경험한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는 상황에서 의문사와 함께 ‘-더-’와 1인칭 주어가 사용될 수 있어.
- ③ ㉠: ‘나와 동생이 밥을 먹더라.’처럼 1인칭 주어와 2인칭 주어가 함께 쓰이면 제약이 사라질 수 있어.
- ④ ㉡: ‘지훈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시험에 합격했어.’는 ‘-더니’와 3인칭 주어가 호응하는 올바른 문장이야.
- ⑤ ㉡: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시험에 합격했어.’를 올바른 문장으로 바꾸려면 ‘하더니’를 ‘했더니’로 바꾸면 돼.

9003-0220

06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문장 성분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어는 용언과 관형사, 다른 부사 및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사어가 명사나 대명사 등의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문장 성분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문장의 성립에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은 아니다. 그러나 부사어 중에는 ㉤문장의 성립에 꼭 필요한 필수 부사어도 있다.

- ① ㉠: 정말로 바라던 일이 일어났다.
- ② ㉡: 새로 만난 우리 선생님은 친절하신 분이다.
- ③ ㉢: 우리 동네 우체국은 경찰서 바로 옆에 있다.
- ④ ㉣: 동생은 나와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식성은 같다.
- ⑤ ㉤: 한 문제만 더 풀면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책을 덮었다.



9003-0221

01 (가)를 참고할 때, (나)의 ㉠, ㉡에 들어갈 사례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자음과 자음이 만나면 충돌을 일으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듯이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도 충돌을 일으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단모음의 충돌을 막는 것이 공통의 목적이다. 그래서 인접한 단모음 중 어느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뀌거나 단모음 사이에 다른 음운이 끼어들게 된다. 또한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두 개의 단모음이 제삼의 단모음으로 축약되기도 한다. 이처럼 단모음의 충돌을 막는 경우는 음운 변동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음운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 (나) - 단모음의 반모음화: 오+아서 → [와서]
 - 단모음의 탈락: 쓰+어도 → [씨도]
 - 반모음의 첨가: (㉠)
 - 단모음의 축약: (㉡)

- | | | |
|---|-------------|----------|
| | ㉠ | ㉡ |
| ① | 이기+어 → [이겨] | 쇼>소 |
| ② | 피+어 → [피여] | 사이>새[새:] |
| ③ | 이기+어 → [이겨] | 거우루>거울 |
| ④ | 피+어 → [피여] | 쇼>소 |
| ⑤ | 가+아도 → [가도] | 사이>새[새:] |

9003-0222

02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관형사가 관형어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것과 같이 특정한 품사가 특정한 문장 성분으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품사에 따라서는 조사나 어미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그러한 도움 없이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가령 명사 '학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단어	문장 성분	용례
학생	주어	㉠
	목적어	㉡
	관형어	㉢
	부사어	㉣
	서술어	㉤

- ① ㉠: 저 사람이 네가 말한 그 학생 아니니?
- ② ㉡: 어머! 저기 지나가는 학생 좀 봐!
- ③ ㉢: 학생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라.
- ④ ㉣: 우리 저 학생에게 길을 물어봐요.
- ⑤ ㉤: 저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 갔다던 학생인가?



9003-0223

03 <보기>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가)의 ㉠~㉣에 해당하는 예를 (나)의 ㉠~㉣에서 찾아 가장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가) ‘생각’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조사한 결과

- ㉠ 의향(意向): 무엇을 하려는 생각.
- ㉡ 의식(意識):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감정이나 견해 혹은 사상.
- ㉢ 의견(意見):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는 생각.

(나) ‘생각’의 용례

- ㉠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중요하다.
- ㉡ 그는 나에게 자신과 같이 같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 ㉢ 나는 회의 시간에 두발 자율화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a | b | c | ② | b | a | c |
| ③ | b | c | a | ④ | c | a | b |
| ⑤ | c | b | a | | | | |

9003-0224

04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의어(多義語)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중심적 의미와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주변적 의미를 갖는다. 국어사전의 다의어 뜻풀이에서도 중심적 의미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주변적 의미를 그 이후에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심적인 의미로부터 주변적인 의미로의 의미 확장 양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의미로부터 추상적인 의미로 의미가 확장된 경우가 많다. 가령 ‘밝다’는 ‘빛이 밝다’에서와 같이 ‘불빛 따위가 환하다.’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로부터 ‘사리에 밝다’에서와 같이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라는 추상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로 의미 확장을 보인다.

- | | 중심적 의미 | 주변적 의미 |
|---|------------------|-------------------|
| ① | 연필이 <u>짧다</u> | 시간이 <u>짧다</u> |
| ② | 하늘을 <u>보다</u> | 기회를 <u>보다</u> |
| ③ | 서재에 책이 <u>있다</u> | 난처한 지경에 <u>있다</u> |
| ④ | 사람의 <u>다리</u> | 섬을 잇는 <u>다리</u> |
| ⑤ | 손을 <u>흔들다</u> | 권력을 <u>손에 넣다</u> |

9003-0225

05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선생님: 우리말 표기법에는 크게 원형을 밝혀 적는 방식과 소리대로 적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파생어의 표기에서는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고,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소리대로 적지요. 주의할 점은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도 의미가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이라면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기 2]

한글 맞춤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 죽음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거름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주검

- ① ‘노름’은 ‘놀다’의 어간 ‘놀-’의 뜻과 떨어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겠군.
- ② ‘믿음’을 ‘미듬’으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음’은 널리 쓰이는 접미사이겠군.
- ③ ‘마감’을 ‘막암’으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암’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이겠군.
- ④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었지만 어간의 뜻과 떨어진 예로 ‘마중’을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로 ‘별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9003-0226

06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어떤 문장 A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이 되는 문장 B가 있다면 ‘A는 B를 함의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희는 이번에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가 참이면, ‘영희는 이번에 경시대회에 참가했다.’도 참이 되지요? 이때 선행하는 문장은 후행하는 문장을 함의한다고 합니다. 함의 관계에는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하는 상호 함의 관계도 있고, 한 문장이 다른 한 문장을 함의하지만, 반대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일방 함의 관계도 있어요. 그럼 ‘영희는 이번에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영희는 이번에 경시대회에 참가했다.’를 함의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위 두 문장의 관계는 뭘까요?

학생: 일방 함의 관계예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상호 함의와 일방 함의의 예문들을 더 만들어 볼까요?

	함의 관계	예문
①	일방 함의	진호가 재희를 업었다. 재희가 진호에게 업혔다.
②	일방 함의	나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그렸다. 나는 태극기를 그렸다.
③	상호 함의	정우는 지수의 자식이다. 지수는 정우의 부모이다.
④	상호 함의	주영이는 유리창을 깨뜨렸다. 유리창이 깨졌다.
⑤	상호 함의	미현이는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미현이는 결혼했다.



9003-0227

01 (가)를 참고하여 (나)의 ㉠~㉣을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현대 국어의 모음

현대 국어의 모음은 모두 21개이다. 21개의 모음을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단모음(10개): ㅏ, ㅓ, ㅗ, ㅜ, ㅡ, ㅣ, ㅑ, ㅓ, ㅕ, ㅛ, ㅝ, ㅟ

- 이중 모음(11개):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나) 모음의 현실 발음 사례

㉠: 단모음 'ㅛ'를 이중 모음 [ㅞ]로 발음한다.

㉡: 단모음 'ㅛ'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ㅘ'와 'ㅞ'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발음한다.

- ① ㉠에도 불구하고 (가)의 이중 모음의 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군.
- ② ㉡으로 인해 (가)에 없던 이중 모음이 새로 생기겠군.
- ③ ㉢으로 인해 (가)의 이중 모음 'ㅘ'와 'ㅞ'도 구분이 안 되겠군.
- ④ ㉡, ㉢은 공통적으로 (가)의 이중 모음의 수를 늘리겠군.
- ⑤ ㉠, ㉡, ㉢은 모두 (가)의 단모음의 수를 줄어들게 하겠군.



9003-0228

02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어미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대 「어미」

[I]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II]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전달할 때 쓰이는 종결 어미. ‘-다고 해’가 줄어든 말.

-대 「어미」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보기 2」

(가) [성린: 어제 보니 네 친구 공부 열심히 하[㉠].
성연: 그 친구 원래 모범생이야.

(나) [성린: 숙제가 왜 이리 많[㉡]?
성연: 내 말이. 그 많은 걸 언제 다 하니?

(다) [성린: 난 아직 못 봤지만, 그 영화 아주 재미있[㉢].
성연: 맞아! 우리 누나도 그러더라.

- | | ㉠ | ㉡ | ㉢ |
|---|-------|------|-------|
| ① | 데 | 데 | 대[I] |
| ② | 데 | 대[I] | 대[II] |
| ③ | 대[I] | 데 | 데 |
| ④ | 데 | 대[I] | 데 |
| ⑤ | 대[II] | 대[I] | 대[II] |



9003-0229

03 <보기>의 ㉠~㉣과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이는 단어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활용 양상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르다'와 같이 어간의 '으'가 탈락하는 유형, '이르다'와 같이 어미가 '어'가 아닌 '러'가 결합하는 유형, '부르다'와 같이 어간의 '으'가 탈락하고 어미가 '어'가 아닌 '러'가 결합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이들 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치르다': 치르-+-어 → 치러
- ㉡ '이르다': 이르-+-어 → 이르러
- ㉢ '부르다': 부르-+-어 → 불러

	㉠	㉡	㉢
①	따르다	푸르다	오르다
②	따르다	오르다	푸르다
③	오르다	푸르다	따르다
④	푸르다	따르다	오르다
⑤	푸르다	오르다	따르다



9003-0230

04 <보기>를 참고하여 ㄱ~ㅁ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자음의 로마자 표기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ㅑ	ㅓ	ㅕ
g, k	kk	k	d, t	tt	t	b, p	pp	p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	ㅡ
j	jj	ch	s	ss	h	n	m	ng	r, l

	국어의 표기 [발음]	로마자 표기
ㄱ	같이[가치]	gachi
ㄴ	신라[실라]	Silla
ㄷ	셋별[쌔:뻔]	saetbyeol
ㄹ	농다[노타]	nota
ㅁ	담요[담뇨]	damnyo

- ① ㄱ: 구개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는군.
- ② ㄴ: 자음 동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는군.
- ③ ㄷ: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는군.
- ④ ㄹ: 동사에서의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는군.
- ⑤ ㅁ: 'ㄴ' 첨가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는군.



9003-0231

05 <보기>의 ㉠과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 표현은 말하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앞서는 시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나타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는 ㉠현재의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보다 더 나중인 ㉡미래의 사건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 ① ㉠: 저 사람은 참 잘생겼다.
- ② ㉠: 지금 보니 엄마와 나는 쌍둥이처럼 닮았다.
- ③ ㉠: 할아버지는 이제 일을 하시기에는 너무 늙으셨다.
- ④ ㉡: 너 내일 선생님께 훈났다.
- ⑤ ㉡: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



9003-0232

06 (가)를 참고할 때, (나)의 ㉠, ㉡에 들어갈 형태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격 조사 중 차이가 큰 대표적 사례로 주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를 들 수 있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현대 국어에 있는 ‘가’가 없었으며, 관형격 조사는 현대 국어에 없는 ‘시’가 더 있었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의 형태를 더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형태	선행 체언의 조건	예
주격 조사	이	지음으로 끝남.	바비(밥+이), 흘기(흙+이)
	ㅣ	‘이’와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남.	곡되(곡도+ㅣ), 공직(공즈+ㅣ)
	∅	‘이’ 또는 ‘ㅣ’로 끝남.	드리(드리+∅), 새(새+∅)
관형격 조사	이	유정물(높임 대상 아님)이고 양성 모음을 가짐.	사르미(사름+이), 들기(들+이)
	의	유정물(높임 대상 아님)이고 음성 모음을 가짐.	버미(범+의), 주의(중+의)
	스	무정물 또는 높임의 대상인 유정물	나뭇(나모+스)[무정물], 부텃(부터+스)[높임]

(나) 현대 국어의 ‘수저’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의 ‘수저’에 주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수저+주격 조사: (㉠), • 수저+관형격 조사: (㉡)

- | | | |
|---|-----|-----|
| | ㉠ | ㉡ |
| ① | 수저이 | 수젓 |
| ② | 수저이 | 수저의 |
| ③ | 수제 | 수저의 |
| ④ | 수제 | 수젓 |
| ⑤ | 수저 | 수저의 |

8003-0207

01 ㉠, ㉡에 해당하는 예들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하나의 음운 변동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적용될 때 그 유형이 ㉠ 동일한 경우도 있고 ㉡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령 ‘갈다’를 [간따]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교체라는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반면 ‘서울역’을 [서울력]으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교체와 첨가라는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	㉡
①	맡는[만는]	흙과[흑과]
②	닭고[담:꼬]	웁다[읍따]
③	옷하교[오태교]	흙자[홀짜]
④	빚고[빈꼬]	핥이다[할치다]
⑤	밧이[미치]	꽃잎[꼇닙]

8003-0208

02 (가)를 참고하여 (나)를 해석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조음 방법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나)

㉠: 잡+는 → [잡는], 믿+는 → [민는], 적+는 → [정는]
 ㉡: 갈+날 → [갈랄], 별+님 → [별:림], 물+놀이 → [물로리]

- ① ㉠와 ㉡는 조음 위치만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② ㉠와 ㉡는 조음 방법만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③ ㉠는 조음 위치, ㉡는 조음 방법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④ ㉠는 조음 방법, ㉡는 조음 위치가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⑤ ㉠와 ㉡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8003-0209

03 <보기>를 활용하여 의존 명사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1) ㄱ.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모두 모여라.
 나. *데 없는 사람은 모두 모여라.
- (2) ㄱ. 그는 {일하는, 일한, 일할, 일하던} 데가 많다.
 나. 눈이 {오는, *온, *올, *오던} 바람에 길이 미끄럽겠다.
- (3) ㄱ.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에 대해 두말할 나위 없었다.
 나.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에 대해 두말할 *나위 몰랐다.
- (4) ㄱ. 그는 사십 줄에 들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나. 나는 멧돼지를 보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 (5) ㄱ. 나도 너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 주겠어.
 나. 어른이 되면 학창 시절에 네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는 비문법적 표현

- ① (1)을 보니, 의존 명사 ‘데’는 반드시 그 앞에 관형어가 수식을 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군.
- ② (2)를 보니, 특정한 관형사형 어미를 요구하는 의존 명사와 그러한 제약이 없는 의존 명사가 있군.
- ③ (3)을 보니, 일부 의존 명사는 서술어와 함께 쓰일 때 제약을 받기도 하는군.
- ④ (4)를 보니, 의존 명사 ‘줄’은 조사 결합에 상관없이 여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는군.
- ⑤ (5)를 보니, 조사와 형태가 동일한 의존 명사도 있군.

8003-0210

04 <보기 1>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2>의 ㉠~㉣의 품사를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있다’와 ‘없다’는 동사와 형용사 중 어떤 품사로 분류하는 게 좋을까? ‘없다’는 ‘사람이 *없는다, *없는구나, 없느냐, 없는, *없어라, *없자’와 같이 형용사에 가까운 활용을 보이고 사람이나 사물 등이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지 않는 상태 등을 나타내므로 형용사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있다’는 활용 측면에서 ‘없다’와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의미 측면에서 서로 구별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두 가지 품사로 나뉜다. 예를 들어 ‘있다’가 ‘없다’의 반대되는 뜻으로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다’의 의미,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이다’ 등의 의미를 지닐 때는 형용사로 처리한다. 한편, ‘움직이다’의 반대되는 뜻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머물다’의 의미,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등의 의미를 지닐 때는 동사로 처리한다.

*는 비문법적 표현

(보기 2)

지호: 지원아, 너를 도서관에서 보다니, 웬일이니?
 지원: 어, 지호구나! 집에 읽고 싶은 책이 없어서 도서관에 와서 책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 그런데 찾는 책이 없네.
 지호: (큰소리로) 아! 그렇구나.
 지원: 췌! 도서관에서는 떠들지 말고 조용히 ㉠ 있어야 돼.
 지호: (조용한 목소리로) 알았어. 그런데 혹시 네가 찾는 책이 뭐니?
 지원: ‘○○○ 이야기’라는 책이야.
 지호: 어, 그 책 우리 집에 ㉡ 있어. 내일, 내가 빌려줄게.
 지원: 진짜야? 정말로 고마워.
 지호: 그럼, 내일 점심시간에 너희 반 교실에 ㉢ 있으면 내가 책을 가져다줄게. 근데 너 혹시 500원짜리 동전 ㉣ 있니? 음료수라도 뽑아 먹자.

	형용사	동사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8003-0211

05 <보기>의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하라.’와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생님: 두 문장은 모두 명령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하라’와 ‘해라’처럼 어간에 붙은 어미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명령형은 직접 명령형과 간접 명령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명령형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때 쓰이며, 어간에 ‘-아라, -어라, -거라, -여라, -너라’ 등의 어미를 결합하여 실현해요. 이에 반해 간접 명령형은 인쇄 매체 등을 통해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말을 전달하거나 불특정 청자에게 명령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이며, 용언의 어간에 ‘-(으)라’를 결합하여 실현해요. 결론적으로 말해, ‘열심히’ 다음의 ‘하라’는 어간 ‘하-’에 어미 ‘-라’가 결합한 간접 명령형이고, ‘해라’는 어간 ‘하-’에 어미 ‘-여라’가 결합하여 변형된 직접 명령형이에요.

학생: [A]

- ① 신문에서 구독자를 위해 쓴 글에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해야겠네요.
- ②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할 때에는 “고장 난 학급 시계를 고치라.”라고 해야겠네요.
- ③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한 시험지에는 “다음 중 알맞은 답을 골라라.”라고 해야겠네요.
- ④ 청년들을 위해 쓴 격려문에는 “청년들이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라고 해야겠네요.
- ⑤ 고향을 떠나 고생하는 아들에게 직접 말할 때에는 “이제 고향에 돌아와라.”라고 해야겠네요.



8003-0212

06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문장 성분 중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주성분이라 하고 관형어, 부사어를 부속 성분이라고 한다. 주성분은 문장의 뼈대가 되는 성분이고 부속 성분은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이다. 한편, 문장 성분은 문장 속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필수 성분과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수의 성분으로 나뉜다. 주성분은 모두 필수 성분이다. 부속 성분은 주로 수의 성분이지만 필수 성분인 경우도 있다. 한편,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을 독립어라 하는데, 독립어도 수의 성분의 하나이다.

(보기 2)

- ㉠ 동호가 수희와 잘 어울린다.
- ㉡ 진희가 가을을 무척 좋아한다.
- ㉢ 수진이는 부산 지리에 익숙하다.
- ㉣ 우리는 광장에서 순희를 보았다.
- ㉤ 형님께서 민수에게 선물을 주었다.

- ① ㉠에는 수의 성분이 2개 들어 있다.
- ② ㉡에는 부속 성분이 1개 들어 있다.
- ③ ㉢에는 필수 성분이 3개 들어 있다.
- ④ ㉣의 ‘광장에서’는 부속 성분이면서 수의 성분이다.
- ⑤ ㉤의 ‘민수에게’는 부속 성분이면서 필수 성분이다.

8003-0213

01 다음 사실들로부터 도출한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물’이라는 단어와 ‘불’이라는 단어의 차이는 어두에 오는 자음의 종류에 달려 있다. ‘ㄹ’과 ‘ㄴ’의 차이에 의해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예로는 ‘남’과 ‘납’도 있다. 이 두 단어는 ‘ㄹ’과 ‘ㄴ’이 어말에 오므로써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 ㉡ ‘개’와 ‘꺀’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여 단어의 뜻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결제’와 ‘결재’는 그 뜻이 다르지만 ‘에’와 ‘애’의 발음이 구별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 단어를 혼동하며 쓰고 있다.
- ㉢ ‘눈’을 길게 발음하면 날씨와 관련된 ‘눈’을 가리키고, 짧게 발음하면 신체의 일부분인 ‘눈’을 가리킨다. 긴소리를 짧게 발음하거나 짧은소리를 길게 발음하면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 ① 음운의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데 관여한다.
- ③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뉜다.
- ④ 음운의 수나 종류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한다.
- ⑤ 음운과 음운이 결합하면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8003-0214

02 <보기 1> 활동지의 ㉠, ㉡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의 예를 <보기 2>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1)

문장에 쓰인 단어의 형태가 같더라도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품사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 문장에 쓰인 ‘다른’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 안에 써 보자.

- 나와 그의 얼굴이 ㉠**다른**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다른	㉡ 다른
기능상 차이	주어진 ‘얼굴이’에 대한 서술성을 지님.	체언인 ‘일’ 앞에서 체언을 꾸며 줌.
형식상 차이	다른 어미와 결합하여 형태 변화가 가능함.	형태 변화를 할 수 없음.
의미상 차이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의 품사는 ()이고, ㉡의 품사는 ()이다.		

(보기 2)

- 그는 왼쪽 다리를 ㉢**바른**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다.
- 그는 회사에서 가장 인사가성이 ㉣**바른**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
- 나는 놀기도 잘하는 ㉤**그런** 친구가 좋다.
- 회사 사정이 ㉥**그런** 걸 내가 어찌할 수가 없네요.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8003-0215

03 <보기>를 참고할 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이 쓰인 예만 묶은 것은?

(보기)

< 조사와 ㉠어미에 대한 학습 내용 정리 >

	조사	어미
사전적 정의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나 구나 절 등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줌. • 의존 형태소이며 형식(문법) 형태소임. 	
차이점	앞말과 분리성이 있어 독립된 품사로 인정함.	앞말과 분리성이 없어 독립된 단어로 보지 않음.
구분	나는 밥 먹고 도서관에만 가겠어.	
	‘는’, ‘에’, ‘만’	‘-고’, ‘-겠-’, ‘-어’
실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너<u>한테</u> 주는 내 선물이다. • 영<u>희에게</u> 무슨 일이 생겼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를 김<u>토한바</u> 오류가 발견됐다. • 얼마나 <u>춥던지</u> 손이 다 얼었다.

- ① [오직 내가 의지할 데는 너의 실력뿐이다.
나는 배든지 사과든지 다 잘 먹는다.
- ② [그 아이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다.
형님, 걸어서든지 달려서든지 늦지 않게만 오세요.
- ③ [새로 온 직원이 인사성도 밝을뿐더러 일도 잘한다.
너는 학교에 가든지 체육관에 가든지 해라.
- ④ [장미는 향기도 좋을뿐더러 꽃도 예쁘다.
함께든지 혼자서든지 즐거운 여행을 하면 된다.
- ⑤ [그는 친구들에게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언제나 밝은 얼굴로 대했다.
나는 운동을 잘한다든지 봉사를 잘한다든지 무엇이든 잘하면 좋겠어.

8003-0216

04 <보기>를 참고할 때, 제시된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보기)

문장 전체 서술어의 시제는 서술어의 활용 형식으로 파악하기 어렵지 않지만, 관형사절 내 서술어의 시제는 형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문장 전체의 시간 해석을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가령, “나는 청소하는 동생을 도왔다.”에서의 ‘-는’은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지만 문장 전체의 시간 해석을 고려하면 ‘청소하는’은 발화시, 곧 말을 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석는 과거의 사건으로만 해석된다. 그런데 “그는 아마 먹은 음식을 다시 찾지는 않을 것이다.”에서의 ‘-은’은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지만 ‘먹은’은 발화시, 곧 현재를 기준으로 해석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① 지난주에는 집에서 읽을 책 10권을 구입했다.
- ② 우리는 그가 남몰래 선행을 하는 것을 보았다.
- ③ 동생은 소풍 때 먹을 음식을 미리 싸 두었다.
- ④ 나는 좋은 영화라면 본 영화도 또 볼 것이다.
- ⑤ 언니는 우체국 가는 길에 은행에 들를 것이다.

8003-0217

05 <보기>의 담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점원: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손님: (진열된 빨간 원피스를 가리키면서) 저 빨간 원피스 좀 입어 볼 수 있나요?
 점원: ㉠ 이것 말씀이시지요? (진열된 빨간 원피스를 꺼내 들고) ㉡ 여기 있습니다.
 (손님이 빨간 원피스를 입고 나온다.)
 손님: (거울에 비춰 보면서) ㉢ 저기, 이 옷 색깔은 ㉣ 이 색밖에 없어요?
 점원: 파란색도 있어요.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 그 색이 잘 어울리시는데요?
 손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붉은 계열의 색이 어울린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 ① ㉠은 앞서 언급된 ‘빨간 원피스’를 가리키는 말로, 앞 발화와의 응집성을 높여 준다.
- ② ㉡은 ‘빨간 원피스’가 화자에게 가까운 곳에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은 ‘이 옷’이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먼 곳에 있음을 나타낸다.
- ④ ㉢과 ㉥이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하다.
- ⑤ ㉤은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



06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8003-0218

(보기)

선생님: 현재 쓰이는 말을 옛말과 비교했을 때,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국어사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떤 표제어를 찾았을 때 『옛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옛말의 쓰임에 따른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은 옛말의 의미와 현재 쓰이는 말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의미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그 양상은 크게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국어사전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미 변화의 양상을 정리해 봅시다.

옛말	현재 쓰는 말	의미 변화의 양상
겨집 「명사」 『옛말』 「1」 계집, 여자 ⁰² . 「2」 '아내' ⁰¹ 의 옛말.	계집 「명사」 「1」 '여자 ⁰² '를 낚잡아 이르는 말. 「2」 '아내' ⁰¹ 를 낚잡아 이르는 말. 【<<겨집 <석보상절>】	[가]
어엿쁘다 「형용사」 『옛말』 '불쌍하다'의 옛말.	어여쁘다 「형용사」 '예쁘다'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어엿쁘다(隣) <석보상절>】	[나]

	[가]	[나]
①	의미의 축소	의미의 확대
②	의미의 이동	의미의 이동
③	의미의 확대	의미의 확대
④	의미의 축소	의미의 축소
⑤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



8003-0219

01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음운 변동의 유형 중에는 첨가가 있다. 이것은 원래는 없던 음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을 가리킨다. 가령 ‘담요[담:뇨]’라는 단어의 경우 ‘담’과 ‘요’가 결합하면서 ‘니’이 첨가되어 [담:뇨]로 발음된 것이다. ‘담요’는 자음이 첨가된 경우이고 단어에 따라서는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가령 ‘뛰어’의 표준 발음은 [뛰어]와 [뛰여]가 모두 가능한데, 이 중 [뛰여]는 ‘뛰-’와 ‘-어’ 사이에 반모음 ‘j’가 첨가된 결과이다. 음운의 첨가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호격 조사와 같이 음운의 첨가를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영철아’와 ‘영수야’에서 호격 조사가 ‘아’와 ‘야’로 다른 것은 ‘야’의 경우 반모음 ‘j’가 첨가된 것을 표기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 ① 솔잎[솔립]
- ② 놓은[노은]
- ③ 되어[되여]
- ④ 색연필[생년필]
- ⑤ 기어서[기여서]



02 <보기>의 ㄱ~ㅁ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003-0220

(보기)

학생: 선생님, 동물의 하나를 일컫는 ‘개’라는 말과 형태가 같은 접사가 있는 게 신기했어요. ‘개꿈’에 쓰인 접두사 ‘개-’와 ‘땃개’에 쓰인 접미사 ‘-개’도 형태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것도 신기하고요. 이처럼 형태는 같은데 여러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는 예에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한 예는 많이 있는데, 명사, 조사, 접사 등으로 쓰이는 ‘들’도 있어요. ‘들’은 ‘편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뜻하는 명사로 알고 있을 텐데, 이외에 의존 명사, 접사, 보조사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의미나 기능	실례
의존 명사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냄.	ㄱ
보조사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문장의 끝 등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 가 복수임을 나타냄.	ㄴ
접두사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함.	ㄷ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의 뜻을 더함.	ㄹ
접미사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함.	ㅁ

- ① ㄱ: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들을 가방에 넣었다.
- ② ㄴ: 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들 있어라.
- ③ ㄷ: 들개는 주인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개를 말한다.
- ④ ㄹ: 형이 동생을 그렇게 들볶으면 형제애가 생기겠니?
- ⑤ ㅁ: 식사 때가 지나 많이 배고프지? 어서들 식사하렴.

8003-0221

03 <보기>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못하다’가 쓰인 부정문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선생님: 항상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못하다’가 동사 뒤에서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에는 ㉠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지만, ㉡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 ‘거부’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한편, 형용사 뒤에서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에는 ㉣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 ㉤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도 쓰여요.

- ① ㉠의 예로 “나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를 들 수 있어요.
- ② ㉡의 예로 “미성년자는 주점에 들어가지 못한다.”를 들 수 있어요.
- ③ ㉢의 예로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네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겠어.”를 들 수 있어요.
- ④ ㉣의 예로 “오늘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못해도 스무 명은 될 것 같아.”를 들 수 있어요.
- ⑤ ㉤의 예로 “아침부터 음식을 하나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프다 못하여 아프기까지 하다.”를 들 수 있어요.



04 <보기 2>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으로 이해할 때, <보기 1>을 바탕으로 ㉠~㉤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003-0222

(보기 1)

직접 발화란 문장 종결 표현의 형식이 발화의 의도와 일치하는 표현을 말하고, 간접 발화란 문장 종결 표현의 형식이 발화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표현을 말한다. 평서문도 간접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로 의문문이 간접 발화가 된다.

(보기 2)

가: ㉠ 이 문제는 지수가 풀어 볼까?

나: 예, 제가 풀어 볼게요.

가: ㉡ 이 얼마나 멋진 광경인가?

나: 그래요, 정말 멋있네요.

가: ㉢ 창문 좀 열어 주실 수 있어요?

나: 예, 그러지요.

가: ㉣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나: 맞아요, 누구나 다 알지요.

가: ㉤ 이 옷이 저한테 어울릴까요?

나: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 ① ㉠: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명령의 발화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 ② ㉡: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감탄의 발화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 ③ ㉢: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청유의 발화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 ④ ㉣: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서술의 발화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 ⑤ ㉤: 의문문의 형식으로써 질문의 발화 의도를 전달하는 직접 발화이다.

8003-0223

0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응집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형식상 특정한 장치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그중 앞에 나온 요소를 뒤에서 다시 언급함으로써 응집성을 형성하는 것을 ‘재수용’이라 한다. ‘옛날에 한 공주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웃 나라 왕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공주’는 재수용되는 말이므로 ‘피수용어’라고 부르고, ‘그녀’는 재수용하는 말이므로 ‘수용어’라고 부른다. 피수용어는 ‘어느, 한’ 등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수용어는 ‘이, 그’ 등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것, 그것, 그, 그녀’ 등의 대명사나 ‘이렇다, 그렇다’ 등의 지시어가 수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보기 2)

남자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 날 한번은 특별한 시간이 찾아왔다. 아침 산책을 하던 남자의 눈에 ㉢ 새들이 지저귀고, 연인들이 웃음 짓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른 날과 달랐던 점은, 갑자기 이 모두가 ㉣ 남자의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 ① ㉠은 ‘남자’를 재수용한 말이므로 수용어에 해당한다.
- ② ㉡은 ‘특별한 시간’을 재수용한 말이므로 수용어에 해당한다.
- ③ ㉢은 뒤 문장에서 ‘모두’로 재수용되는 말이므로 피수용어에 해당한다.
- ④ ㉣은 뒤 문장에서 ‘그’로 재수용되는 말이므로 피수용어에 해당한다.
- ⑤ ㉤은 뒤 문장에서 ‘그렇게’로 재수용되는 말이므로 피수용어에 해당한다.



8003-0224

06 <보기>를 참고할 때, 현대 국어 중 ㉠의 예와 중세 국어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에도 합성법에 의해 만들어진 합성어 용언이 많이 있다. 그런데 두 시기에 쓰인 합성어를 살펴보면 ㉠ ‘용언 어간+어미+용언 어간’으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와 ㉡ ‘용언 어간+용언 어간’으로 구성된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태가 다양하게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다.’라는 뜻의 합성어로는, 현대 국어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 ‘뛰놀다’와 통사적 합성어 ‘뛰어놀다’가 모두 쓰이고 있고, 중세 국어에는 비통사적 합성어 ‘뛰놀다’가 쓰였다.

	현대 국어 중 ㉠의 예	중세 국어 중 ㉡의 예
①	그는 한 걸음을 더 <u>나아갔다</u> .	棺(관) 알피 <u>나아가</u> (관 앞에 나아가)
②	네가 드디어 <u>돌아오다니</u> 꿈만 같구나!	지브로 <u>도라오실</u> 제(집으로 돌아오실 때)
③	그건 내가 평소에 잘 <u>듣보아</u> 놓은 일이야.	귀에 <u>듣보미</u> 업거든(귀에 듣봄이 없거든)
④	내가 <u>빌어먹는</u> 형편에 집이 있을 리 없지.	나라해 <u>빌머그라</u> 오시니 (나라에 빌어먹으러 오시니)
⑤	승강기가 고장 나서 계단을 <u>오르내렸다</u> .	이 양으로 세 번 <u>오르내리샤</u> (이 모양으로 세 번 오르내리시어))



8003-0225

01 (가)를 참고하여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음운 변동 중에는 주위 음의 특성에 닮아 가는 동화가 많다. 가령 ‘국민[궁민]’과 같은 단어에서 ‘국’의 종성 ‘ㄱ’이 ‘ㅇ’으로 바뀐 것은 그 뒤에 오는 ‘ㅁ’의 조음 방식에 동화된 결과이다. 이러한 동화 현상에서는 동화음과 피동화음을 구분하는 것이 편리하다. 동화음은 동화를 시키는 음이고 피동화음은 동화를 입는 음이다. 그래서 동화음은 바뀌지 않고 피동화음이 동화음에 닮아서 바뀌게 된다. 동화는 동화음과 피동화음의 종류, 순서, 거리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나) 동화의 예시

- ㉠ 설날[설:랄], 월남[월랍] ㉡ 권력[궐력], 천 리[철리] ㉢ 굳이[구지], 같이[가치]

- ① ㉠과 ㉡은 동화음과 피동화음의 종류가 동일하다.
- ② ㉠과 ㉡은 동화음과 피동화음의 순서가 반대이다.
- ③ ㉡과 ㉢은 동화음과 피동화음의 순서가 동일하다.
- ④ ㉠과 ㉢은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동일하게 바뀐다.
- ⑤ ㉠, ㉡, ㉢은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인접하고 있다.

8003-0226

02 <보기>의 ㉠과 ㉡처럼 상하 관계를 이루는 단어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상하 관계는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 ‘과일’은 ㉡ ‘사과’를 포함하고 ‘사과’는 ‘과일’에 포함되는데, ‘과일’을 상의어, ‘사과’를 하의어라고 한다. 한편 전체 부분 관계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부분이 되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이를 이루는 ‘타이어’의 관계가 전체 부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관계에 있는 단어의 특징 중 하나는 하의어는 상의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부분어는 전체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타이어’는 ‘자동차’라고 할 수 없다.

	㉠	㉡
①	그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었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날고 있다.
②	나는 식목일을 맞이하여 늘 나무를 심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잘 견딘다.
③	봄이 되니 화단에 꽃이 피었다.	빨간 장미를 보니 옛 추억이 생각이 났다.
④	커다란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수족관에는 은백색의 갈치가 헤엄치고 있었다.
⑤	우리 선수들은 구기 종목에서 강세를 보였다.	최근에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다.



0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시간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003-0227

(보기)

선생님: 시간 표현과 관련된 개념 중에 ‘발화시’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말하고, ‘사건시’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말해요.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인데, ‘-았-/-었-’ 등이 쓰여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에서 ‘-었-’은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것임을 나타내요. 한편 현재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인데, ‘-는-/-ㄴ-’ 등이 쓰여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에서 ‘-는-’은 사건이 현재 일어나는 것임을 나타내요. 그런데 ㉠ ‘-았-/-었-’이 과거의 사건만 한정해서 나타내지 않거나 ㉡ ‘-는-/-ㄴ-’이 현재의 사건만 한정해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구분	문장의 예	시간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
①	㉠	화단에 나팔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됨.
②	㉠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 내일 내들이는 다 갔구나!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
③	㉡	나는 매일 비타민을 먹는다.	특정한 시간에 사건이 일어날 예정임.
④	㉡	그가 드디어 내일 온다.	가까운 미래의 일임.
⑤	㉡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	진리라고 여겨지는 현상이나 사실임.

04 <보기>를 참고할 때, 해체와 하계체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8003-0228

(보기)

해체와 하계체는 상대 높임의 등급으로 확실히 구분된다. 해체는 듣는 이를 비격식적으로 낮추거나 편안하게 대하며 말하는 뜻을 나타내고, 하계체는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낮은 상대를 존중하며 말하는 뜻을 나타낸다. 그런데 해체와 하계체 종결 어미의 형태가 같아서 상황 맥락 없는 문장만으로는 해체인지 하계체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체라면 듣는 이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 경우 ‘요’를 붙여 해요체로 바꾸어 쓸 수 있고 하계체라면 ‘요’를 붙일 수 없다. ‘요’의 결합 가능성은 비격식적 낮춤인 해체와 격식적 낮춤인 해라체를 구분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 ① 형님이 요즘 허리가 안 좋다고 하시네.
- ② 이 일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게.
- ③ 네가 그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 ④ 가방은 집에 놓고 가볍게 떠나고 싶어.
- ⑤ 이번 달에는 공휴일이 많아서 좋았니?

8003-0229

05 <보기>는 국어사전 자료이다.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Ⅰ 「대명사」

「1」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2」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3」 (복수 접미사 ‘-들’ 앞에 쓰여) ‘이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

Ⅱ 「관형사」

「1」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2」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 ① ㉠ [A: 사과 사 왔어. 어떤 걸로 먹을래?
B: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네.
- ② ㉡ [A: 또 연락이 온 거야?
B: 응. 이들이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 ③ ㉢ [A: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
B: 맞아.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해.
- ④ ㉣ [A: 시험에 합격한 것 축하해. 지금 기분이 어때?
B: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 ⑤ ㉤ [A: 여기 좀 봐. 사과나무에 검은별무늬병이 생겼어.
B: 이 병을 없애는 약이 필요하겠다.



06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ㄱ~ㅁ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 문장에서 목적어의 실현]

- 체언에 목적격 조사(을/를, 을/를, ㄹ)가 붙어서 실현됨.
- 체언에 목적격 조사 없이 체언 단독으로 실현됨.
- 체언에 목적격 조사 없이 보조사가 붙어서 실현됨.
-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실현됨.
-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실현됨.

(보기 2)

- ㄱ. 내 太子를 섬기스보되 (내가 태자를 섬기되)
- ㄴ. 꽃 도쿄 여름 하느니 (꽃 좋고 열매 많으니)
- ㄷ. 도헌 고즈란 꼭디 말오 (좋은 꽃일랑 팔지 말고)
- ㄹ. 먼저 더 부텃 像을 빙그라 (먼저 저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 ㅁ. 빅 트길 아디 못흐며서 (배 타기를 알지 못하면서)

- ① ㄱ: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서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 ② ㄴ: 체언에 목적격 조사 없이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 ③ ㄷ: 보조사 '고즈란'이 붙어서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 ④ ㄹ: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 ⑤ ㅁ: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목적어가 실현되었군.